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36호

Thursday, July 10 2025 A

트럼프 “상호관세 연기 마지막이다”

“구리 50%, 의약품 200%”
반도체 관세도 곧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빠르면 이달 말 공표할 것임을 예고했다. 구리 관세는 8월1일 50%, 의약품 관세로 200%를 예시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각각 25%) 등 14개국에 보내는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품목별 관세로 전선을 넓혀가며 각국에 대한 협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일이 더는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8월 1일로 공표한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데서 하루 만에 달라진 태도였다. 상호관세를 다시 유예하면서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이미지가 계속 덧씌워지는 데 대한 반작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아이오와주 아의 특설 무대에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로이테]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8월 1일로 일괄 연기한 것은 무역 협상 시간 확보를 원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참모진의 요청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는 시종 강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생산설비를 갖춘

외국 업체들이 과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미국을 떠나갔다고 주장하며 “나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몇 다른 주요 분야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며, 그 이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가령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리 관세를 50%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 50%와 같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의약품·반도체·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들이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 장관이 이를 조사하고 위협 완화 방안이 들어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90일 이내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일 등에 보내는 관세 서한에서 25%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고 했다.

김형구 기자

연방대법원 공무원 해고 정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이 정당하며 하급심을 반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8일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정책을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8대 1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규모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5월 공무원 해고 정책이 연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절차적 흠결에 의해 중단조치를 명령했었다. 해리스 필드 백악관 부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개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대량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욱재 기자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수감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약 12㎡(3.7평)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재수감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달 18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구속 상태로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6개월간 구금 상태가 유지된



특검팀 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서 “4·19 혁명 등 피비린내 나는 노력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비상계엄으로 40년 후퇴시켰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도 20분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은 외환 혐의가 포함된 졸속 영장 청구”라며 “나머지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 공보 등은 앞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인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다.

나은채 기자

메릴랜드, 올해 열사병 관련 8명 사망

메릴랜드 지역에서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7일 메릴랜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폭염에서 오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8명이나 됐다. 또 더위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급증했다.

지난 한 주간 열 관련 질병으로 472명이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 추세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열사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총 729건으로 기록됐는데, 2024년 전체보다 60%가 많은

수치다. 응급실 방문 환자는 남성이 63%로 여성보다 많았고, 인종별로는 백인이 53%를 차지했다. 8명의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75%나 돼 노년층이 취약 계층으로 드러났다.

보건 당국은 열사병 환자 증가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아직도 폭염철이 몇 달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체감 온도가 최대 100-105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성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불변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 기념식

내셔널몰 한국전 기념 공원에서

오는 27일 오전 10시 워싱턴DC 내셔널몰의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에서 정전협정 제72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재단(Korea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은 미국과 실제 전투 참여한 22개국 용사를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의 역사적 헌신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 행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친 이들을 기



하기 위한 진실된 발언과 진심이 담긴 뮤지컬 공연, 엄숙한 헌화 행사 등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미국과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적대 행위를 종결시켰으나,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파괴와 손실을 초래했다.

이 협정은 공식적인 평화 협정은 아니었지만,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오늘날까지 분단의 상징과 함께 화해에 대한 지속적인 희망을 의미한다. 이 정전협정 후 한반도에는 비무장지대가 설치됐다.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는 재단의 인터넷 해당 페이지(<https://koreanwarvetstsmemorial.org/event/72nd-commemoration-ceremony-of-the-korean-armistice-agreement-july-27-2025/>)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김윤미 기자

독립 연휴, 과속·음주·신호위반 적발 '급증'

버지니아주 경찰 발표
교통사고로 11명 사망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버지니아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위반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8일 버지니아주 경찰(VSP)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11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중 9건은 한인 밀집 지역인 페어팩스를 비롯해 프린스 에드워드, 버킹엄, 헨리코, 스파실베이니아 카운티 등지에서 발생했다. 전년도 사망자 수는 10명이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과속 혐의로 3000명의 운전자를 기소했고, 무모한 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1400명 이상을 기소했다.

또한 수십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500건 이상 티켓이 발부됐다.

교통위반 적발과 관련 경찰은 "연휴 기간은 많은 주민이 이동하는 시기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법규 준수는 개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AMC 영화관, 여름휴가철 '50% 할인'

매주 화·수요일에 한정
AMC 스텝스 회원 대상

매주 최대 영화관 체인인 AMC 시어터스가 여름철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실시해 영화 애호가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AMC는 자사의 무료 멤버십 프로그램인 AMC Stubs 회원을 대상

으로 매주 화수요일 영화 관람 티켓을 정가에 50% 할인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벤트의 종료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에 실시하는 할인 혜택은 티켓을 비롯해 스몰 사이즈 팝콘과 음료 세트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돌비 시네마(Dolby Cinema), 아이맥스(IMAX)

등 프리미엄 상영관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예매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객 보은 차원에서 특별히 실시되는 이번 할인 혜택은 AMC 스텝스 인사이드 등급 이상 회원에게 제공되는 데 회원 가입은 무료다.

김성한 기자

조지 메이슨 대학 소수계 워크숍

이민역사 디지털 기록

조지메이슨 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이 한인 등 소수계를 위한 '이민역사 기록 워크숍' 행사를 마련했다.

리사 브레그리아 선임 부학장은 "아태계 가정과 커뮤니티의 이민 역사를 디지털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려 이민 역사를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1차 워크숍은 12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디지털과 데이터 리터러시'를 주제로, 2차 워크숍은 26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가족 역사 문서화하기' 주제로 열린다.

워크숍은 무료로 진행하며 점심식사가 제공되고 무료 주차 혜택도 있다.

김옥채 기자

중앙일보 구독 및 광고 문의: 703-281-9660

워싱턴 날씨 (°F)

11일(금)	88-72	14일(월)	87-71
12일(토)	90-73	15일(화)	90-72
13일(일)	88-71	16일(수)	89-74

7월 10일(목) 84-7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	--

NMLS #: 2425871

융자 가능한 주

- * 버지니아
- * 메릴랜드
- * 워싱턴 DC
- * 뉴저지
- * 조지아
- * 웨스트 버지니아
- * 노스 캐롤라이나
- * 사우스 캐롤라이나
- * 델라웨어
- * 알라바마
- * 플로리다
- * 테네시
- * 미시간
- * 캘리포니아
- * 펜실베이니아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한지꽃과 스님의 밥상으로 전하는 한국의 미(美)

KACAF, '코리아아트앤소울' 문화 체험행사 성료

한미문화예술재단(KACAF·이사장 이태미)이 매년 주최해 온 아태문화축제, 한국예술의 혼 '코리아아트앤소울'이 19회를 맞았다. 재단은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노바커뮤니티칼리지에서 한국 문화 강연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태미 이사장은 "미국 사회에 전통 한지를 활용한 '지화(紙花)'를 소개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며 "처음에는 낯설게 여겨지던 지화가 이제는 예술과 문화, 교육의 매개체로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현지 학생들과 아시아-태평양계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진 및 교직원들

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김현정 프로그램 디렉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자리에서는 이주환 작가(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한지꽃·천연염색 기능보유자)가 전통 한지를 활용한 한지꽃 제작 시연을 선보였으며, 참석자들은 직접 체험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 공예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한 참가자는 "오늘 직접 만든 한지꽃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며 "한국 전통미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한 '21세기 자연음식'을 이끄는 박송희 원장(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남의례음식' 전수자)



한미문화예술재단(KACAF·이사장 이태미)이 노바커뮤니티칼리지에서 한국문화강연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 참석자들에게 '스님의 밥상'을 재현한 오찬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지꽃이 단순한 공예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미감을 담은 예술임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문화의 섬세함과 고유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아트앤소울'은 한미문화예술재단이 매년 주최하는 대표적인 아태문화축제로,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와 지역 사회와의 문화 교류를 목표로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통 연희예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며 한국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충남과학고, 찬틀리 고교 방문

글로벌 과학체험 프로그램

충남과학고등학교(교장 김준태) 학생 80명이 미국 동부 글로벌 과학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9일 오전, 버지

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찬틀리 고교를 방문했다.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현지 고등학교의 수업 환경과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에이미 굿로우 찬틀리 고교 교장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

하고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태 교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교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일룡 교육위원은 "미국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한미 간 지속적인 교육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과학고등학교 일행은 지난 7월 3일부터 8일간의 미국 동부 탐방 일정을 마치고 7월 10일 귀국했다.

김육재 기자



충남과학고 학생들이 찬틀리 고교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했다.



충남과학고 김준태 교장(왼쪽에서 4번째)과 찬틀리 고교 에이미 굿로우 교장(왼쪽에서 3번째)

광복절 행사 성대히 치른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단재장 회의를 통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8일(화) 열린 회의를 통해 경축식을 8월15일 오후 2시30분 노바대학 어니스트 커뮤니티 컬처럴 센터(8430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22003)에서 열기로 했다.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행사는 버지니아 한인회가 주관하고 메릴랜드한인회, 메릴랜드총한인회,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보훈부, 재외동포청, 주미대사관, 광복회,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후원한다.

경축식에는 클래식 3중주 연주 등 여러 공연이 곁들여지고 광복절을 테마

로한 전시회도 예정돼 있다.

참가자에게는 광복떡 세트와 태극기 로고가 인쇄된 바람개비, 생수, 소다 등이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2만 9887달러로 책정됐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일은 오미 - 오미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년 이상 경력
주택 매매·렌트 전문
연 80~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한미 청소년 역사탐방

일시 2025년 7월 26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대상 워싱턴 지역 중/고등학생
탐방 경유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당일 Drop off & Pick up 장소: 코리안커뮤니티센터
6601 Little River Tpke., Alexandria, VA 22312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추모의 벽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아메리칸 히스토리뮤지엄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주미대한제국공사관 (Old Korean Legation Museum)

접수 및 문의: puac21wdc@gmail.com
jupilyun@gmail.co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회장 린다 한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Washington Chapter

영주권 갱신 기간 10배 더 걸린다

0.8개월서 8.3개월
35만6000건 미처리

올해 들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절차가 급격히 지연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1~3월)의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양식인 I-90 처리 기간은 8.3개월(중위수치)이나 됐다. 이는 직전 분기(2024년 10월~12월)의 0.8개월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기간이다. 2분기 USCIS의 I-90 접수 건수가

28만5000건으로 전 분기(18만9000건) 대비 51%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말 기준 미처리 신청 건수는 35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갱신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필요하며, 분실·도난·훼손 등의 이유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의 80%는 최대 21.5개월, 갱신 신청의 경우엔 12.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이는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매우 큰 폭의 지연이다. 2024년 전체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 2022년에는 1.2개월, 2021년에는 5.2개월이었다.

USCIS는 처리 지연에 따른 해결책으로 2024년 9월부터 I-90 접수 확인증만 있으면 기존 영주권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 해외여행, 신분 확인 등 실물 영주권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발급 지연은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산불 시즌 - 캐스태익서도 발생 고온과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남가주 전역에 산불 주의보가 내려졌다. 8일 오후에는 샌타클라리타 인근 캐스태익 지역에서 '버트 화재(Bert Fire)'가 발생 47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불길의 잡혔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몇 주간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FOX11 캡처]

타주 임신부들 LA로 원정 출산

출생 시민권 제한 여파
산부인과 등 예약 늘어
한국서의 문의는 감소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원정 출산'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텍사스,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주에서 출산 예정이던 임신부들이 가주 등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

는 주에서의 출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지난 4일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엘에이맘스(LA Moms)'의 출산·산후조리방에는 '타주에서 LA로 임신부 혼자 애 낳으러 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는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며 "출산을 위해 LA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에도 타주에서의 원정출산 문의가 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LA한인타운 내 김성호 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플로리다, 텍사스 등 출생 시민권이 중단되는 주에서 출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인뿐 아니라 임신부들의 국적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MK산후조리원 마이클 김 대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주에 사는 한인 임신부 2명이 예약을 했다"며 "반면, 한국에서의 원정 출산 문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공항 검색대서 신발 안 벗는다

국내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규정이 곧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J)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교통안전청(TSA)이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 시 승객들이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는 새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TSA는 성명을 통해

"TSA와 국토안보부(DHS)는 항공 승객들의 여행 경험을 개선하면서도 강력하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보안 절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TSA 직원들이 신발을 신은 승객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고, 폭탄 테러 등의 위협

을 감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TSA는 2001년 말 프랑스 파리발 마이애미행 비행기에서 '신발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이 터지자 5년이 지난 후부터 승객들의 신발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TSA는 규정을 신설해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 승객은 무조건 신발을 벗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보안 검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은별 기자

박세준 귀국 구명 운동 확산

<추방된 참전 군인>

담당 변호사 청원 개설
8일까지 6359명 서명

미 육군 출신 한인 영주권자 박세준(55·사진)씨를 귀국시키기 위한 구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월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달 26일 뉴욕 퀸스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박씨의 형사 사건 재심리 요청과 마약 소지 및 범원 출석 불이행 유죄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게시됐다.

이 청원은 박씨의 변호인 다니콜 라모스가 올렸으며, 현재(8일 오후 4시 기준)까지 6359명이 서명했다.

청원에는 박씨의 구명을 지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자크씨는 "총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군인을 이렇게 추방하다니 끔찍하다"며 "나라를 위해 싸운 만큼 미국에서 치료를 받



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스씨도 "시민권자 여부를 떠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사람을 내쫓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씨는 현재 서울의 숙소에서 머물며 자녀와 어머니와 연락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당신의 새로운 썸머 룩을 소개합니다.



**GOLDEN OPPORTUNITY
SALES EVENT**

9월 2일 종료

Experience Amazing

사회보장국 등 피싱 사기 주의보

〈SSA〉

무작위 이메일·문자 보내
계좌정지·체포 등 위협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국(SSA)이나 연방 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폭스뉴스는 'SSA 사칭 피싱 사기'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기범은 SSA 행정처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범행 대상에게 겁을 준 뒤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SSA, 연방거래위원회(FTC), 텍사스·뉴멕시코 등 법원, 법집행기관 등을 사칭해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낸다. 사기범들은 ▶계좌 정지 ▶약 연루 ▶자금세탁 ▶체포 압박 등 자극적 문구로 공포심을 조장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해당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며 특정 웹사이트 접속 등을 유도해 SSN 등 개인 정보를 빼낸다. 일부는 기프트카드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송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SSA와 FTC는 "정부기관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SSA는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공식 계정(www.ssa.gov/myaccount) 알림을 통해 정식으로 연락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문에는 수신자 이름과 고유 케이스 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SSA 등 정부기관 사칭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속지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체포나 계좌 동결 등 겁주는 이메일이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신 보낸 기관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서 직접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SSA 등 정부기관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는 SSA 감사국(oig.ssa.gov/report)과 FTC(reportfraud.ftc.gov)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SSA가 지난 주말 가입자 7100만 명에게 보낸 감사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관련 세액공제 안내 이메일이 혼동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SA 측은 해당 안내 이메일에 "신규 법의 시행으로 연금 수급자 약 90%가 면세 대상"이라면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 등은 해당 법안에는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세액공제(1인 최대 6000달러, 부부합산 최대 1만2000달러)를 2028년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내용이 담겼으며, 완전 세금 면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이 정확한 정보 전달 대신 트러플 행정부 정책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프라임데이에 월마트·타깃 '맞불 할인'

월마트 딜스 올 13일까지
타깃 서클 워크세일 실시
일부 제품엔 '2+1' 혜택도

아마존이 연례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국내 최대 오프라인 소매업체 월마트, 그리고 타깃까지 나란히 맞불 할인 행사를 펼치면서 업체들은 치열한 소비자 쟁탈전에 나섰다.

특히 올해 중반부터 경쟁 업체들의 가격 세일이 이르게 겹치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전자제품, 학용품, 가정용품, 의류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됐다.

우선 올해 프라임데이는 오는 11일까지로 나흘간 진행된다.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수백만 개의 상품을 할인하며, 전자제품, 가전, 의류, 신학기 용품, 생활용품, 건강·미용 제품, 완구 등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할인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본지 7월 4일자 G-3면〉

이에 질세라 월마트도 지난 8일부터 '월마트 딜스(Walmart Deals)' 행사를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할인전에 돌입했다.

행사 품목은 전자제품, 가전, 장난감, 의류, 학용품 등이며, 온라인은 물론 전국 4600여 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전자제품과 학용품에 대해선 각각 최대 50%, 40%까지 할

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맥북 에어 13인치 50% 할인, 삼성 32인치 스마트 모니터 100달러 할인, 갤럭시 워치 47% 할인 등이 주요 이벤트 품목으로 알려졌다.

타깃 역시 오는 12일까지 '타깃 서클 워크(Target Circle Week)' 세일을 실시한다.

자사 무료 멤버십인 '타깃 서클' 회원을 대상으로, 학용품,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매일 새 할인 품목을 공개해 새로운 딜을 찾는 재미를 더했다. 일부 제품은 '2+1' 혜택이 주어진다.

유료 회원인 '타깃 서클 360'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첫 당일 주문 50달러 쿠폰을 활용해 할인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유료 멤버십의 가격은 월 10.99달러, 연 99달러다.

시장조사업체 아마케터는 "아마존이 올해 할인 일정을 앞당기면서 월마트, 타깃 등 경쟁사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충성도와 여름 소비를 선점하기 위한 정면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커머스 최강자로 군림해왔지만, 오프라인 선두 주자인 월마트가 온라인 인프라이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경쟁자로 부상한 상태다. 우윤식 기자

스페이스X, 기업가치 550조

일론 머스크의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약 40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불거진 '오너 리스크'를 뛰어넘어 만큼 투자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신규 주식을 발행하고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초기 투

자자나 직원이 보유한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4000억 달러로 평가됐다. 지난해 중순 2100억 달러에서 같은 해 12월 3500억 달러로 상승했는데, 또다시 500억 달러가 오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주식 거래를 계기로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이란 입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임성기 기자

WSJ "상호관세 미룬 건 재무장관 요청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무역대상국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의 발표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일괄 연기한 것은 무역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참모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가운데)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더 들이면 무역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베센트 장관 등 당국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이었던 지난 5~6일 뉴저지주 자택 골프클럽에서 참모들과 전화 통화 및 비공개 논의를 거쳐 관세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그는 상호관세 적용일을 새로 정할지, 아니면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관세율만 기재한 서한을 보낼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협상보다 즉각적인 관세 부과에 무게를 두기도 했지만 "일부 합의가 가까워졌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베센트 장관의 설명에 따라 입장을 선화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각국에 90일 유예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관세 적용 시점이 다가오던 가운데 베센트 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인도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관세 관련 서한을 발송하고 협상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상호관세는 애초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발표 시점을 8월 1일로 늦추고 각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이해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L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조 등)
웨이브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주차장으로 들어주세요~

중 본토 자본 몰린다...홍콩 IPO 시장 '폭풍 성장'

중국 홍콩이 국제 금융 허브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올 상반기 홍콩 신규 주식시장은 1071억 홍콩달러(약 18조635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며 세계적으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다. 홍콩은 주식 시장 20% 상승에 힘입어 세계 금융 중심 도시 1위 자리를 꿰찼다.

지난 5월 20일 홍콩증권거래소(HKEX)의 전광판. 신화통신

홍콩 신규 주식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16개 중국 본토 기업이 홍콩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일 신청 규모로는 역대 최고치다. 7월 상순에는 6개 기업이 같은 날 상장할 예정이다. 현재 홍콩거래소에서 상장 대기 중인 기업은 무려 220개에 달한다.

중국 본토 기업들은 홍콩이라는 국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자원과 연결하고 관련 산업 및 시장의 혁신과 업그레이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동력 배터리, 에너지저장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가 홍콩에서 상장했다. 조달 자금은 400억 홍콩 달러(6조9600억원) 이상으로 그중 90%의 자금은 헝가리 배터리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닝더스다이는 홍콩 상장을 통해 해외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 기술을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사슬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0일 홍콩거래소에서 열린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상장식 현장. 신화통신

산둥(山東)고속그룹 산하 유일의 역외 산업 지주사이자 투자·금융 플랫폼인 산가오(山高)홀딩스는 홍콩 상장 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기업의 지난해 총자산 규모는 661억7000만 위안(11조5135억원)에 달했다.

산가오홀딩스 책임자는 홍콩 상장



지난 5월 20일 홍콩거래소에서 열린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상장식 현장.

[신화통신]

후 신에너지, 신형 인프라 건설 등 전략적 신산업에 포커스를 맞춰 '인내 자본'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한편, 홍콩의 금융 허브 우위를 기반으로 채권 발행 등 방식을 통해 글로벌 자원을 응집하며 본토의 실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에너지 분야에서 산

가오홀딩스는 홍콩 시장에서 '산업-자본-기술' 사슬을 연결해 산동성, 신장(新疆), 광시(廣西) 등지에 풍력발전, 태양광 프로젝트를 배치함으로써 산업 자본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녹색 자원과 데이터 센터의 산업 협동 발전을 적극 추진해 전력과 컴퓨터파워가 융합된 생태계를

구축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홍콩의 용자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프라이머리 마켓(발행시장)의 지분 용자 금액은 2500억 홍콩달러(43조5000억원)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8억 홍콩달러(10조4052억원)보다 무려 318% 증가한 규모다.

세계 최대 상하이 레고랜드 개장

중 테마파크 시장 '래속 질주'

테마파크 산업이 중국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인 상하이 레고랜드가 지난 5일 정식으로 개장했다.

6월 5일 상하이 레고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관광객. 신화통신

상하이시 진산(金山)구에 위치한 면적 31만8000㎡의 상하이 레고랜드 리조트는 중국 최초의 레고랜드다.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레고 테마파크와 호텔로 구성됐다. 8개 테마존과 75개 이상의 인터랙티브 놀이기구, 공연,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레고 모형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31일 상하이 레고랜드에서 관광객을 태운 보트가 '야외 미니 월드'를 지나고 있다. 신화통신

최근 몇 년 사이 상하이 디즈니랜드,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명 테마파크가 중국에 문을 열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중국 소비 시장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소비 수요도 더욱 다원화됐음을 시사한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취날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여름 중국 전역의 테마파크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5일 상하이 레고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관광객.

[신화통신]

러우자권(樓嘉軍) 화동(華東)사범 대학 교수는 중국이 테마파크의 '파급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업계 인식에 따르면 테마파크의 파급 효과는 현지 시장 외에 자가용으로 1시간 반경의 주변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국의 테마파크는 고속철도망을 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 테마파크·어트랙션 협회(IAAPA)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은 4400개 이상의 대형 어트랙션과 놀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중

국 어트랙션 및 테마파크 업계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중국이 무비자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차이나 트래블(China Travel)' 열기가 연일 '핫'하다. 올 1~5월 상하이를 찾은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한 339만6000명(연인원)을 기록했다.

상하이 레고랜드 운영사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의 피오나 이스트우드 최고경영자(CEO)는 상하이 레고랜드가 중국 관광객 외에 글로벌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목적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했다.

러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 방러 또는 푸틴 방북 계획 없어"

크렘린궁은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9일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러한 방문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오는 11~13일 북한을 방문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11~13일 외무성 초청으로 방북한다고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 이후 1년여 만이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목적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김은빈 기자

'1형 당뇨병' 바비 인형 만든 까닭

팔에 혈당측정기 착용

미국의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이 '1형 당뇨병 바비 인형'을 출시했다.

8일 AFP 보도에 따르면 신제품 바비 인형은 팔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분홍색 하트 모양의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연출됐다.

하루 종일 혈당 수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

다. 허리에는 필요 시 자동으로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는 소형 착용형 의료기기 '인슐린 펌프'도 있다.

인형이 입고 있는 파란색 물방울 무늬 상의와 치마에도 의미가 있다. 2006년 유엔(UN) 결의로 공식 채택된 '세계 당뇨병 인식의 상징'인 푸른 원을 형상화했다.

원은 삶, 건강, 긍정 화합을, 파란색은 하늘, 희망, 국가 간 연대를 의미한다.

정세내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첸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i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irlawpllc.com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UL. 10th - JUL. 17th, 2025

농심 사발면 (12컵)

후루룩 스페셜

신라면/육개장/소고기/매운치킨/치킨/매운김치/매운새우/새우/랍스터

NONGSHIM BOWL NOODLES (12 CUPS) - HURRY! SUPER SALE!

(SHIN / HOT & SPICY / BEEF / SPICY CHICKEN / CHICKEN / SPICY KIMCHI / SPICY SHRIMP / SHRIMP / LOBSTER)



~~\$22.99~~

\$10.99



12X86G

판매가 중단되거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afford, VA
30 Pigeon Hill Dr., Stafford
VA 22455

Centreville, VA
18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2950 Metrocenter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00 Farmwell Hunt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00 Elder Street
Herndon, VA 20151

Elcott City, MD
8001 Baltimore National Pike
Elcott City, MD 21042

Catoxville, MD
8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xville, MD 21228

Rockville, MD
7802 West MD 70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성남시 시작 대통령 직접소통, 세인바움 담은꼴

(멕시코 대통령)

잇단 타운홀미팅 열어 의견 경청
아침 민원 듣는다는 멕시코 대통령
G7서 만난 후 자극 받았을 가능성



종교계 지도자들 만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계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종교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채식 위주의 한식에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후식으로 나왔다. 앞줄 왼쪽부터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이용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이 대통령,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최홍수 성교관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뒷줄 왼쪽부터 박인준 천도교 교령,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사진 대통령실]

“국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했으면 합니다.”(업체 관계자)

“보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울 수 있는지 관련 부처가 검토해 주세요.”(이재명 대통령)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에서 오간 대화 중 일부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과 방산 업체 관계자들이 동그렇게 마주 앉아 대본 없이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궁금했던 특정 전략무기 분야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방산 수출 업체의 요청에도 일일이 답했다.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에게 즉석에서 지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K방산 업체와의 만남도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였으니 타운홀 미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분야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취임 36일째인 이 대통령은 ‘직접 소통’ 정치로 화제를 모았다. 시작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이었다. 이 대통령은 ‘광

주 군(軍)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대립하던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를 중재했고, 200명 넘는 시민들로부터 ‘사법시험 부활’ 같은 돌발 질문을 받았다. 모든 장면은 생중계됐고, 대통령실은 질문 기회를 못 얻은 시민들이 건넨 ‘쪽지 민원’ 100장을 받아갔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두 번째 타운홀 미팅엔 350명이 모였다. 새벽부터 줄서 입장한 사람도 있었다. 소상공인 부채 탕감 같은 정책 논의도 오갔지만 “마을 협오시설을 옮겨 달라”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 같은 민원도 쏟아졌다. 이 대통령이 “저도 일선의 개별 민원을 처리할 권한은 없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참석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이 대통령의 ‘직접 소통’ 정치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 후 본격화됐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이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뒤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멕시코에선 중도좌파 정권이 2018년 처음 집권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 지금도 70~8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세인바움 대통령이 그 비결로 국민과 수시로 직접 대화하는 걸 꼽았다”며 “이 대통령이 강한 인상을 받은 듯했다”고 말했다.

‘마나네라(Mañanera)’라고 불리는 멕시코 대통령의 아침 대화는 세인바움 대통령이 2024년 취임 이후 평일 아

침 7시마다 진행되는 생중계 기자회견이다. 전임 대통령인 로페스 오브라도가 2018년 시작했는데, 집권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 정부의 관례가 됐다. 주로 대통령궁에서 열리지만 때로는 주제와 연관된 현장에서도 진행한다. 중남미 전문가인 하남석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민이 직접 발언하기도 하고, 안보 이슈를 다룰 때는 해당 지역에서 열리기도 한다”며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이 국민에게 정책을 직접 설명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직접 민원을 청취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8월 경기도 양주의 계곡 정비 철거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토론하던 장면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동(洞)별로 일일이 돌며 민원을 직접 받곤 했는데, 첫째 무수히 많던 민원을 관련 부서에 하나씩 전달하니 해가 갈수록 줄곤 했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그런 경험이 있으니 타운홀 미팅 같은 행사를 자신감 있게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 기자

제자논문 베끼면서 제자이름 뺐다... 이진숙 가로채기 의혹

(부총리·교육장관 후보자)

충남대 교수 때 제자 셋과 쓴 논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과 사실상 동일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뒤 참여 학생의 이름을 아예 빼버린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9일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인 이 후보자가 1저자로 발표한 복수의 논문을 확인한 결과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이 추가로 드러났다. 1999년 7월 한국색채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축적모형을 이용한 시환경 평가 실험의 유효성 검증’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그보다 3개월 앞서 열린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때 발표된 ‘조

명·색채평가실험에 있어서 축적모형 실험의 유효성 검증’ 논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먼저 발표된 논문은 당시 충남대 대학원 박사과정생 A씨가 1저자로, 같은 학교 석사과정생 B·C씨와 이 후보자 등 4명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논문은 발표된 학술지는 물론 제목과 제1저자 등이 서로 다르지만, 서론부터 결론까지 판박이다. 서론을 구성하는 9개 문장은 똑같고, ‘학부 4학년 이상 남자 13명, 여자 17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12쌍의 어휘를 선정하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 실험도 동일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문장을 조금씩 바꿨지만, 주요 내용은 사실상 같았다. 이

후보자는 이처럼 3개월 전 발표된 제자의 논문과 사실상 같은 논문을 내면서, 앞선 논문을 참고·요약했다는 출처 표기를 각주나 참고문헌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을 1저자로 올리면서 먼저 발표된 논문의 1저자였던 A씨만 공동 저자로 표기하고, 석사과정생 B·C씨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다. 한 연구윤리 전문가는 “석사생들의 이름을 빼면 (저자가 적어지니) 나중에 발표된 논문 저자들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며 “제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가로채기’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논문에선 타 대학원생 석사

학위 논문을 상당 부분 베낀 정황도 나왔다. 이 후보자가 2013년 10월 충남대 석사과정생 D씨와 공동 저자로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해체주의 건축물의 색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3개월 먼저 발표된 다른 대학원생 E씨의 석사 학위 논문 ‘피터 아이젠만 건축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와 여러 단언이 유사했다.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23%였다. 학계에선 통상 20% 이상이면 표절을 의심한다. D씨 논문은 서론을 구성하는 9개 문장 중 7개 문장이 E씨 논문과 겹치는 등 논문 곳곳에 유사한 문장이 이어졌지만, 각주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참고문헌에 E씨 논문을 기재했다. 학계 전문가는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면 각주 누락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없도록 챙길 책임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 후보자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이 건검희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느냐”고 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감정이 얼마만큼 받아들여 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수현·김창용 기자

천해성 전 통일차관, 국정원장 특보 임명

천해성(사진) 전 통일부 차관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특보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대북정책통이자 남북회담 전문가로 꼽히는 천 특보의 기용은 중단된 남북대화 체널을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분석이다.

9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이종석 원장 취임 직후 천 특보를 임명하는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며 “천 특보는 이미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고시(30회) 출신으로 1987년 통일부에 입부한 천 특보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대변인, 인도협력국장 등 통일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 등 급작한

북한 문제를 다뤘고, 김대중 정부였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등에도 관여했다. 앞서 이종석 원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국정원이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룩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와 이종석 원장과의 인연은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천 특보는 이 원장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사무차장(2003~2005년)으로 재직할 때 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p>1. 웃음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싱글 \$1,450,000</p> <p>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p>	<p>5. 애넌데일 싱글 \$749,000</p> <p>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 3, 카포치, 세차, 드라이브웨이 44인치, 화물 2, 31 2sqft, 0.46acre, SOLD \$5.15, 동시세 보다 50%이상 저렴. 리모델링/부자 가치높음. 397/236/495/95/166</p>	<p>10. 센터빌 벽돌타운 \$639,000</p> <p>방 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p> <p>Coming Soon</p>
<p>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p> <p>방 4, 화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155 corner</p>	<p>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p> <p>방 3, 화2.5, 차고1, 좋은학군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p> <p>Coming Soon</p>	<p>11. 게인스빌 콘도 \$425,000</p> <p>방 3, 화1,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p> <p>Under Contract</p>
<p>3. 찬들리 하이 싱글 \$1,100,000</p> <p>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군, 방 6, 화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p>	<p>7.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p> <p>2014년, 방 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p> <p>Coming Soon</p>	<p>12. 맥클린 콘도 1,300,000/2,5409,000</p> <p>1. 방 1, 화1, 762sqft 2. 방 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 66/267/17, Metro, Tysons Galleria 옆</p>
<p>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719,000</p> <p>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아외 리프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아외 주방, 책난로, 연못, 분수, 벽, 음향 시스템 등)</p>	<p>8. 애쉬번 타운 \$670,000</p> <p>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딜러스 공항</p> <p>Coming Soon</p>	<p>13. 찬들리 새타운 오피스 \$3,600</p> <p>방 3, 화3.5, 차고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p> <p>Rented</p>
<p>•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백년보, 하드우드 바닥, 선물, 고급 조명 • 인공위성, 스마트 홈, 도어오픈 • 인공위성, 스타일,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 최신 HVAC, 장수 시스템 •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신발, 최고 학군</p>	<p>9.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p> <p>게인스빌 레이크 매니라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SOLD</p>	<p>14. 매매/리스</p> <p>*센터빌 중심 상업용 미장원 오피스,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용 미장원 오피스 \$3,300/m, 1300sqft, 29/66, 7-11</p>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민트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KOREAN AIR DELTA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항공권+유심권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08/02~08/15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390+항공
08/05~08/15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390+항공
08/08~08/13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4~08/20	알래스카 일주 대강	6박 7일	\$2990(항공포함)
08/21~08/31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오션뷰
08/29~0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08~09/15	알래스카 크루즈 대강	7박 8일	\$2190(부타~/인사이드) \$2590(부타~/가려진 발코니)
09/09~09/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6~09/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2990+항공 부타~/인사이드 \$3490+항공 부타~/오션뷰
10/21~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8박 9일	\$22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1/03~11/14	일본 크루즈	11박 12일	\$2990+항공 부타~/인사이드
11/11~11/24	아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3박 14일	\$3980+항공
11/14~11/24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1~12/02	아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6~11/30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490+항공
1/21~2/2/26	신비의 인도&네팔	12박 13일	\$4590+항공
01/27~02/06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0박 11일	\$7800+항공
02/03~02/07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02/11~02/22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02/19~03/06	아프리카 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10박11일 | \$29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09/16~09/26 + 오사카
 3박 4일 | 9/27~9/30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4차 10/14~10/24 + 동경
 3박 4일 | 10/25~10/28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5차 10/21~10/31 + 일본크루즈
 11박12일 | 11/3~11/14 |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오션뷰-발코니요금문의

동경&오사카 11/01~11/06
 5박 6일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6차 10/28~11/07 + 동경&오사카
 5박 6일 | 11/8~11/13 |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일본연합투어
 *2인 이상 출발보장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
 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
 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
 속초/김포/제주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맞춰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내륙 6박 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동해안 4박 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서남권 3박 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도 2박 3일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전국일주 9박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동남아 연합투어

방콕/파타야 3박 5일 \$490+항공	다낭 3박 5일 \$450+항공	대만 3박 4일 \$690+항공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690+항공	나트랑/달랏 3박 5일 \$450+항공	싱가폴 3박 5일 \$850+항공

TMCI 고국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미국국적) 20% off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가천대길병원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라인타워스페셜 특식(음식)
7월 14일, 28일 대형버스 확정
2박3일 \$650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케백/플레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노아
 +아미슈마켓 당일
 7/22, 9/9, 9/30, 10/16, 10/29, 11/13, 12/4

뉴욕
 워싱턴시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캐넌까지 알찬 여행

서부투어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캐넌 5박 6일 \$990+항공

5대캐넌+세노니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특검 10명, 178장 PPT ‘릴레이 혐의입증’ ... 윤측은 전면반박

특검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속필요” 윤측 “문건에 일절 관여한적 없어” 5가지 혐의... 휴정까지 해가며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납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늦은 밤까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22분에 시작된 심문은 오후 7시7분부터 휴정한 뒤 8시에 속개하면서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역대 최장이었던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심문 기록을 깰지 주목됐다. 당시 영장 발부 결론은 이튿날 오전 3시에 나왔다.

심문이 길어진 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정예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변호인단이 총출동해 특검이 청구한 다섯 가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영장 심사에 섰다.

이날 특검팀에선 박역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는 앞선 두 차례의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이끈 검사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채명성·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 전원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팀은 총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기रो에 놓인 심경이 어떨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프레젠테이션에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담았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소집·개최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주요 증거가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파트별로 나눠 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며 “특검팀이 먼저 발표하고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식으로 공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참여 검사들 중에서 관련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대응하는 식으로 심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문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혹 외에도, 계엄 선포 이후 강요된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들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의로 선정한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

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비상계엄 직후 하태원 당시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외신용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하게 했다는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비화문 삭제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실제로 저질렀다”며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내란 우두머

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심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이라 먼저 도착 가능한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일 뿐이며, 심의는 의결과 달리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태원 전 비서관에게 허위 홍보를 시켰다는 주장에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도 “문건 작성과 폐기 과정에 일절 관여한 적 없으며, 오히려 부속실에 ‘왜 이런 걸 만드느냐’며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라고 항변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9일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꼭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석경민·김성진 기자

특검 ‘코바나 협찬’ 기업 수사 착수

‘김건희 집사’ 통한 뇌물 의혹 조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중 김건희 여사 집안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씨와 렌터카 업체인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대한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가 대주주이자 설립자인 이 업체가 2023년 6월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등 대기업·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만 김씨 개인 지분을 사주는 데 쓰였다.

김씨는 김 여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과정 동문으로 2012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역임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79)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IMS모빌리티 전신인 비마이카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수입어대를 지원받아 렌터카업을 시작했고 2013·2016·2019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했다. 김 여사도 비마이카 계열사인 비엠씨셀앤바사내 이사를 역임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코바나컨텐츠 협찬사가 각종 오톨리스크가 있는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내사하던 중 속칭 ‘집사’로 불리는 김씨가 4월(메트남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사무실 및 가족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의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이 “김 여사가 IMS모빌리티를 이용해 수익을 취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7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8일 “김 여사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진호·이찬규 기자

“방시혁 투자자 속여 2000억 부당이득”

금융당국이 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발 방침을 정했다. 증권위는 16일 정례 회의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어렵다”고 속여 이들이 가

진 하이브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도한 정황을 확인해 조사했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비슷한 시기 기업공개(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상장 준비를 몰래 진행했던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날 하이브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금융위에 검찰 고발 의견을 냈다.

김남준 기자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인 권리와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보사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등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비엔나 새집 지을 땅 \$87만불
 H-Mart에서 가까운 곳 0.24 에이커 부원이 남향인집 워터뷰 베이스먼트 나오는 집

식당 자리
 센터빌 햄버거사당 자리 1928 SF
 알렉산드리아 스나식당 자리 3814 SF
 메릴랜드 락빌 고가집 자리 6,195 SF
 메릴랜드 락빌 스시, 이자카야 자리 4,675 SF

매 매
 VA 스틸링, 창고 2,000 SF, 드라이브인, \$660,000
 창고 VA 헨들리, 21,000 SF, 주차 45대 나눠서 임대가능, \$ 5,600,000
 MD 게이더스버그 교회자리 대략100석 주차 65대, \$ 1,500,000
 MD 컬럼비아 사무실건물 7,700 SF, \$ 2,175,000

Reston 오피스 빌딩
 \$7,500,000
 · 건물면적: 38,510 스퀘어피트
 · 대지 면적: 약 37,000 제곱피트
 · 엘리베이터: 37개
 · 주차: 1000 이상
 · 기업 분사 또는 프라이빗 스쿨용 적합
 · 총 주차 공간: 138대 (3,710,000 SF 비율) → 직원용 주차 또는 야외 놀이 공간 조성 가능
 · 건물 전체: 3층
 · 구성: 사무실, 회의실, 개발형 공간 혼합
 · 대형 카페테리아 및 휴게 공간, 피트니스 센터, 총 6개의 카진, 야외 피크닉 공간,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대형 창 - 자연 채광과 숲 전망 제공, 개방형 아트리움 계단 + 고속 엘리베이터
 · 매개기 기준 평당 단가: \$94,75/SF (신축 비용 대비 낮은 가격)
 · 경제성: 매인 시 임대 대비 비용 절감 효과 35% 이상
 · 활용성: 직접 사용 가능
 ·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추가 수익 창출 가능
 · 향후 성장 여류 확보

종교시설 매매
 \$4,500,000
 · 위치: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
 · 대지 면적: 약 30에이커
 · 건물 면적: 총 약 18,423 SF (2개 등, 2단계 건축)
 · 주차 공간: 98대 (장애인 지정 포함)
 · 매각 조건: 현재 상태 "As-is" 매각
 · 용도지역: R-200 (주거지역, 예배시설은 기본 허용)
 · 세균: 종교 비과세 적용, 물환경 및 폐기물세 포함
 · 비용 일부 포함, 전체 "As-is" 매각 조건
 이 매물은 예배당, 커뮤니티 센터, 교육기관(학교), 문화 복합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넓은 확장성, 넉넉한 주차 공간, 상업용 주방, 다목적 공간 구조로 매우 실용적인 매물입니다.

Woodbridge 상업용 부동산
 \$3,950,000
 · 용도: 데이케어 / 사립학교용 건물 \$3,950,000 (평당 \$483.48)
 · 연면적: 약 8,170 SF
 · 준공연도: 2012년
 · 총 층수: 3층
 · 총 주차 공간: 40대
 · 장애인 접근성: 메인 레벨 출입 가능, 낮은 목실 거울 등 설치

주책 구입후 인테리어 디자인/공사 컨설팅 해드립니다
주책 빌딩 소개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컨설팅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주책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승경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구인

스시 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월, 화, 목, 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수요일 | CLOSED
금, 토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주말 발렛파킹 서비스 해드립니다.

도봉구 3억 오를 때 서초구 20억 뛰었다

〈84㎡ 아파트값〉

도봉구 아파트값 평균 3억→6.3억
서초구 8.5억→28.6억 '양극화 심화'
"수요 많은 지역에 주택공급 늘려야"

서울 서초구에서 2015년 상반기 거래된 국민평형(84㎡) 아파트 평균값은 8억52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0억1500만원(237%)이 오른 28억6700만원이 됐다. 2015년 상반기 서초구 최고가는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의 16억9000만원, 공급면적 3.3㎡당 가격은 5000만원 정도다. 10년이 지난 올해 최고가는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의 70억원(3.3㎡당 2억1000만원)으로 10년 새 3.3㎡당 가격은 4배가 됐다. 하지만 도봉구의 평균 거래가 상승 폭은 3억700만원(3억3100만→6억3700만원, 97%)에 그친다. 도봉구 A아파트의 국평은 2015년 2억4400만원에서 올해 3억5000만원이 됐다.

10년 전 같은 출발선에 섰던 아파트의 걸음 폭도 차이가 났다. 2015년 상반기 7억5000만원에 거래된 구로구 B아파트 84㎡는 올해 6월 14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0년 전 같은 가격에 손바뀐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힐리타운 전용 84㎡의 가격은 23억원이다. 같은 시기, 다른 선택이 10억원의 격차를 벌린 것이다.

지난 10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푹푹한 한 채'가 좌우했다. 대체로 학군·교통·인프라를 두루 갖춘 상급지(上級地)에 위치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신축이나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를 의미하는 '푹푹한 한 채'는 지난 10

년 새 다락같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를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그 가치만 높아졌다.

'푹푹한 한 채' 풀림은 서울 내에서도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진다. 9일 중앙일보가 2015~2025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용 84㎡ 거래 23만4000여 건을 췌 GPT와 통계 패키지 등을 통해 전수 분석한 결과, 거래 가격 상위 10%와 하위 10% 평균값의 비율을 지수화한 격차 지수(gap ratio)는 2015년 상반기 3.15에서 올해 상반기 4.91로 1.6배가 됐다.

올해 상반기 격차지수는 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다. 상·하위 10% 거래 평균 가격 격차는 2015년 상반기 6억1300만원에서 올해 23억89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서초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거래 평균값의 격차는 2015년 상반기 2.58에서 올해 상반기 4.50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초(超)양극화 현상이 저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아파트값은 9.39%, 강남구 8.63%, 서초구 7.83% 등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뒤이어 성동(6.69%), 마포(6.01%), 용산구(5.32%) 등의 순이다. 이에 반해 서울 외곽의 도봉(0.03%)·중랑(0.10%)·금천구(0.31%) 등은 사실상 가격 상승이 멈췄다. 역설적으로 다주택 규제 강화가 '푹푹한 한 채' 선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작점은 2016년 8·25 가계대출 대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속했던 부동산 부양책과 '빚내서 집 사라'던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10년간 서울 자치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

단위: 원, ※ 국민평형(84㎡) 아파트 평균, 자료: 국토부
■ 2015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자치구	2015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상승폭
서초구	8억5200만	28억6700만	20억1500만
강남구	8억6600만	25억8900만	17억2300만
송파구	6억7400만	20억1100만	13억3700만
용산구	6억4500만	18억1200만	11억6700만
성동구	5억2500만	16억6900만	11억4400만
금천구	3억3600만	7억1400만	3억7700만
강북구	3억6600만	7억2200만	3억5600만
도봉구	3억3100만	6억3700만	3억700만

해소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분양권 집단대출을 들여막았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은 주택 수요자의 전력이 '푹푹한 한 채'로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 투기·투기과열 지구를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을 담았던 때다. 이후에도 다주택자를 타기한 규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면서 약 10년 동안 '푹푹한 한 채'는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공식으로 작동했다.

고가 주택(15억원 이상)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펼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엔 서울 아파트 자체가 '푹푹한 한 채'의 상징이었다. 중심·외곽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은 영끌 '패닉바잉'이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를 견어내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 들어선 10억원에 가까운 고액 주택대에 기대 상급지

로 수요가 몰리는 일종의 '베블런 효과'가 확인됐다.

최근 고소득 30~50대는 고액 대출을 지렛대 삼아 앞다퉈 상급지 매수에 나섰다. 이른바 마용성과 양천·강동·광진·동작 등 한강벨트까지 매수세가 번졌다. 중상급지 수요가 확대하면서 강남3구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는 효과도 나타났다. 올해 1분기 10분위(상위 10%) 가격이 4억4700만원 될 때 하위 10% 가격은 53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규제로 묶다 보니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반면에 생활여건이 뛰어난 지역의 희소성은 더 높아졌다. 여기에 각종 다주택자 규제는 싼 집 여러 채보다, 비싼 집 한 채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불러 '푹푹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강화했다.

무리한 상급지 진입은 가계대출 증가를 부른다. 가계빚이 늘면 씹씹이를 줄이고 소비는 위축된다. 경기 회복의 걸림돌인 셈이다. 특정 지역의 집값만 급등하면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 갈등, 근로 의욕 저하 등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 현 정부가 집값 양극화 문제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 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푹푹한 한 채'가 있는 상급지행 사다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도 "서울 아파트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

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현금으로 '푹푹한 한 채'를 사는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 전망에서도.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일시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현금 부자들은 계속해서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반면, 대출 규제로 외곽 지역 아파트는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푹푹한 한 채'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현재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지닌 사람은 6억원짜리 집 2채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부동산 자산 12억원을 보유하고도 9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중부세를 내야 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경제학과 교수는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중부세 등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송인호 소장은 "몇만 가구 등 구호를 앞세운 총량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선호가 높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야 "벌어지는 격차를 최소한 멈출 수 있다"는 계승소장의 제안이다.

세종=김원 기자

'지방 패싱' 확산... 서울 하위 집값, 지방 상위보다 비싸

(20%)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자리를 잡은 손모(42)씨는 2018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16억원(전용 84㎡)에 매입했다. 손씨는 "부모님 노후까지 생각해 부모님과 공동 투자로 샀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31억원대에 거래됐다. 당초 손씨의 부모가 사려던 부산 아파트는 같은 기간 6억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23.3%로 전년(22.8%)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24.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이 비중은 2017년까지 10%대에 머물렀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6억원 대출 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

※ 2025년 6월 평균매매가격 기준
단위: 원 자료: KB부동산

구분	서울	6대 광역시	기타지방
5분위(상위 20%)	31억4419만	7억3392만	4억9014만
4분위	14억8573만	4억3775만	2억8840만
3분위	10억2660만	3억1599만	1억9833만
2분위	7억6433만	2억2373만	1억3003만
1분위(하위 20%)	4억9085만	1억2971만	6795만

제 발표 이후 약간 진정됐지만 지금도 하루에 서너 건 정도는 지방 거주자의 매수 문의가 있다"고 전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한, 무주택자 입장에서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서울을 먼저 쳐다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3050클

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속한 7개국 가운데 한국은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9%로 가장 높다. 국내총생산(GDP)의 수도권 집중도(52.3%)와 일자리(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집중도(58.4%) 역시 압도적인 1위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1992년 44.1%에서 2024년 50.9%로 증가했고, GDP 집중도 역시 1985년 44.2%에서

2023년 52.3%까지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가 부동산 '지방 패싱'을 부추겼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15년 6월 6대 광역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1535만원이었다. 수도권(3억5274만원)과 약 1억4000만원 차이였다. 하지만 올해 6월엔 6대 광역시 3억6818만원, 수도권 7억8190만원으로 벌어졌다. 같은 기간 6대 광역시와 서울의 아파트값 차이는 3억원 수준에서 약 10억원으로 커졌다. 심지어 서울은 하위 20%(1분위) 아파트값도 4억9085만원으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5분위 아파트값(4억9014만원)보다 비싸다.

올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0.88%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2021년 10% 이상 상승한 이후 계속 마

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도 부진하면서 미분양 규모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13가구로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2.9%인 2만2397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3844가구)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잔여 세대 특별 혜택' '선착순 파격가' 같은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FOOP(과매수 공포, Fear Of OverPaying)'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격이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비싸게 살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부동산 정책도 이젠 수도권과 지방을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Xray / CT / MRI 리퍼럴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1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ellow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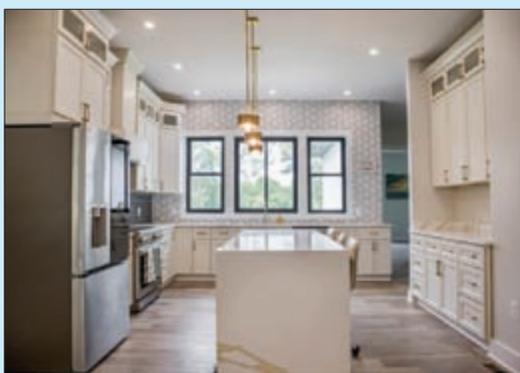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트럼프, 관세편지 다음날 “한국, 방위비 연 100억 달러 내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유한 한국, 방위비 매우 적게 내” “주한미군 4만5000명” 틀린 발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8일(현지시간) 꺼내 들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직후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했고, 나쁜 거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돌연 한국의 방위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하고 한국에 머물렀다”며 “우리는 사실상 무료로 군사 지원을 했지만, 그들(한국)은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했다”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 우리에게도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매우 훌륭하지만, 이제 자신의 국방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관세와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에 있었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은 난리가 나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정선거(2020년 미 대선) 때문에 협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이 당선됐다면 방위비를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렸을 거란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 부분이 과장됐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주한미군 숫자는 4만5000명이 아닌 최대 2만8000여 명 수준이다. 2019년 한국에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은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였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는 정치적 발언 때마다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며 “이번 발언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미국서 돌아온 위성락 “국방비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 중”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미국에 정상회담 조속 개최 제안 정상회담 동력, 관세 말고도 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미국 측을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서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다.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에서 완전한 합의를 못 이루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정부가 구상 중인 것이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이 한-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

했다. 그는 “큰 현안인 관세 협상, 안보 관련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관세 이슈가 다는 아니고 그 외 정세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다양한 한-미 관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냐, 그런 거시적 관점을 잃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25% 관세’ 서한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안보를 포함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는 국방비와 관련해 위 실장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여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요구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렸는데, 한국도 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 해석이 가능한 부분

이다. 다만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 몫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규모라든지 전시작전권도 포괄적인 협상 카드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안보 협의 속에는 여러 가지가 논의 대상 중 하나”라며 “그 논의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와 소요 비용을 검토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검토하고 있으니 미국의 생각이 먼저”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북 주민 6명 동해서 돌려보냈다... NLL 이북서 예인선 만나

정부가 동-서해에서 표류하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동해 상에서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은 앞서 유엔사 채널을 통한 송환 협의엔 응하지 않았지만, 북측 해역에 예인용 어선과 경비정을 대기시켰다. 이는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북 조치인 셈인데, 북한 역시 이에 큰 거부 반응은 보이지 않은 셈이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6명은 이날 오전 8시 56분 정부의 인도에 따

라 자신들이 타고 온 목선을 통해 자력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이어 목선은 9시 24분쯤 NLL 북방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북한의 예인용 어선과 접촉했다. 이후 별다른 결연 조치 없이 예인선과 함께 북측 해역으로 이동했다. 근방에서 대기 중인 북한의 경비정도 목격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 전원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3월 7일 서해에서 2명, 5월 27일 동해에서 4명의 북한 주민이 남측으로 표류해 왔다. 이들은 그간 서북도 서서량부 예하 군 시설 등에서 숙식하며 귀환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정부는 최근 유엔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송환 방식을 타진한 끝에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해 NLL로 해상 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유엔사를 통해 일시와 해상 좌표 등 송환 계획을 최근 1주일 새 북

측에 두 차례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접수만 했을 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 9일 정부가 통보한 일시-장소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5월에도 북측과 소통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해 NLL을 통해 북한 주민 6명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당시도 북한은 사전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경비정 등 북측 선박이 송환 장소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때와 달리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남북을 적대적 교전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적국’에 오랜 기간 머문 주민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걸 체제 불안 요소로 여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마지막까지 선박이 NLL 이북으로 넘어간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북한 당국이 월북을 저지하는 상황 등을 우려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해도 다소 일반적으로 북측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유엔사가 이날 송환 사실을 인지한 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defer to)”이라며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도 주목된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윤희숙 “어떤 개인도 칼 휘두를 권한 없다”

안철수 사퇴 이틀 만에 전격 임명 인적쇄신 방식의 혁신엔 선 그어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파문 이틀 만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으로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윤 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

선 때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올해 초 여의도연구원장에 취임했고, 대선 기간 정강·정책 방송 연설자로 나서 “권력에 줄서는 정치가 계엄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12·3 계엄을 사과하고 당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앞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는 아주 좁고 어두운 길 하나만 남아 있다”며 “혁신의 주체인 당원이 혁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포함한 혁신안의 정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차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인적 쇄신 방식의 혁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의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며 “(인적 쇄신은) 특정 개인과 계파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인적 쇄신 없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겠느냐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총선까지 3년 남았는데,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면 청산 대상들이 뿔뿔 뿔쳐서 혁신위를 공격할 것”이라며 “지금 혁신위를 해도 국민께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가 혁신위 활동 종료와 맞물리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혁신위 임기(8월 31일)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중순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

다. 신임 지도부가 혁신안을 오롯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혁신위를 진행하겠다”며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은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건진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준기) 수사를 두고 “이재명 정권이 특검의 칼을 휘두르며 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임기 남았다” 사퇴론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

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공직 기강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국무회의 배

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견이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강 대변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국무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나’는 질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국무회의 규정을 근거로 ‘배석 여부



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방통위 기자회견을 방문해 “개인적으로 아쉽다”며 “통합 대통령’ 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 소관 업무를 맡슴드렸다”고 말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는 “현행 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

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강 대변인은 8일 “지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윤성민 기자

백두대간이 가른 폭염, 서쪽은 39도 동쪽은 한풀 꺾여

9일 이례적인 ‘7월 상순’ 폭염이 이틀째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강타했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했다. 전북 정읍은 37.8도까지 오르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광탄)는 39.2도까지 올랐다. ‘불면의 밤’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서울은 10일째, 청주 11일, 전주는 5일째 열대야가 지속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상청은 수도권

과 충청, 호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서해와 남해, 제주 연안엔 ‘고수온 비상’도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고수온주의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해보다 보름 이른 시점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등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열질환 예방에 힘을 쓸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때 이른 폭염에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 7일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앉은 채 숨진 데 이어, 8일 충남에선 논에서 일하던 80대와 90대가 사망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소방·의료·구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서울시는 161개 119 폭염구급대와 119개 ‘뽀뽀러스’(소방 펌프차+앰블러스)를 온열 질환자 구조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강하 기상청 영향예보지원팀장은

“특히 녹지가 없는 도심 생활 공간이나 공사장, 논밭 등 야외 온도는 표준화된 기상청 관측 기록보다 더 높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8일 오후 4시 기사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의 한 공사장 주변 기온은 40.5도로 측정돼, 비슷한 시간에 기록된 기상청 용산구 AWS 지점 낮 최고기온(39.1도)보다 1도 이상 높았다.

이번 서쪽 지역의 폭염은 동풍이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를 덮던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물러나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고 있는데, 이 바람

이 백두대간을 넘어며 뜨거워진 탓이다. 이로 인해 서울은 8일 37.8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다.

반면 7일까지 극한 폭염에 시달리던 백두대간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되고 있다.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동풍은 12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이로 인한 폭염의 강도는 차츰 약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10일 수도권 낮 기온은 최고 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은혜 기자

마른 장마에 맨바닥 드러난 저수지 “옥수수·감자 수확 물 건너갔어요”

“비가 오지 않아 옥수수, 감자는 바짝 말랐고 개는 심지어 못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한 밭에서 유봉열(71)씨는 뜨거운 햇볕에 말라가는 옥수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300㎡(1000평) 규모의 밭에 옥수수와 감자를 심었다.

유씨는 “비가 안 와 저수지에도 물이 부족해 농작물이 말라가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며 “올해 밭작물 수확은 물 건너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오봉리엔 74가구 농가가 있는데 농민 대부분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이 마을 옥수수원인 오봉저수지는 황토빛 바닥이 드러난 상태다. 이 저수지 저수율은 9일 기준 30.9%(442만 7700t)에 불과하다. 오봉저수지는 강릉 지역 생활·농업용수의 90% 정도를 공

급한다. 매일 생활·농업용수를 각 10만 t씩 공급해왔다. 하지만 7월부터 생활용수는 기존처럼 공급하지만, 농업용수는 이틀간 10만 t씩 보내고 3일은 공급하지 않고 있다. 저수율이 25% 아래로 떨어지면 생활용수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김인열 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오봉 지소장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일주일 뒤 저수



지난 8일 강원도 강릉시 오봉저수지 인근 도마천 일대가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율이 25%까지 떨어져 생활용수 제한도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른 장마에 강원지역 지자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현재 도내 80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9.5%다.

지난해 64.2%, 평년의 68.4%보다 낮다. 특히 강릉(11곳·34.1%), 속초(2곳·23.8%), 삼척(3곳·29.2%) 등은 20~30% 수준이다.

안대훈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넙데데’ vs ‘넙데데’

조선시대에는 쌍꺼풀이 있는 눈보다 외꺼풀 눈을, 알쌍한 얼굴형보다 둥그런 얼굴형을 선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미의 기준이 바뀌어 온라인상에는 ‘넙데데한 얼굴을 알쌍하게 만드는 방법’ 등과 같은 글이 많다.

얼굴이 둥글고 평면적일 때 ‘넙데데하다’고 표기하곤 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넙데데하다’를 찾아보면 ‘너부데데하다’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돼 있다. ‘너부데데하다’는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너부죽하다’란 뜻을 지닌 단어로, 이를 줄이면 ‘넙데데하다’라고 쓸 수 있다.

‘넙적한 얼굴’에서와 같이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는 의미로 쓰는 ‘넙적하다’를 떠올려서인지, ‘넙데데하다’를 바른 표현으로 알고 있는 이가 많다. 그러나 ‘넙데데하다’ ‘너부데데하다’가 올바른 표기다.

두께가 얇거나 날렵해 보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위에서와 같이 ‘알쌍하다’라고 쓰곤 하지만 이 역시 바른 표현이 아니다. ‘알쌍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팍하다’의 잘못이라고 나온다. ‘조금 얇은 듯하다’라는 의미의 ‘알브스름하다’, ‘조금 알브스름하다’라는 뜻의 ‘알실하다’가 표준어인 반면, 많은 이가 사용하는 ‘알쌍하다’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의아하기도 하다. 언중(言衆)의 잦은 사용을 고려해 ‘알쌍하다’의 표준어 등재를 생각해 볼 만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K팝’에 ‘K푸드’ 올린 흥행 레시피



이은영
LA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등 이미 글로벌화된 대표 K푸드 대신, 김밥, 컵라면, 냉면, 설렁탕처럼 ‘한국인의 평범한 한 끼’를 영화 전면에 배치했다. “김밥 한 줄을 들고 폭풍 흡입하는 건 한국 사람들에게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의 말처럼 이 작품은 한식을 ‘이국적인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으로 그렸다.

이러한 연출은 기존 글로벌 콘텐츠에서 한식이 종종 ‘낯선 오브제’로 소비되어온 방식과 크게 다르다. 분식집의 초록색과 흰색이 섞인 플라스틱 접시, 어묵국에 떠 있는 과, 참기름 바른 김밥 등은 모두 실제 한국의 식생활에서 차용한 디테일들이다.

시각적 재현을 맡은 소니 이미지웍스는 이를 사실적으로 구현해냈고, 한국 관객들조차 “진짜 같다”고 할 정도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공연을 앞두고 고음 발생에 실패한 루미가 설렁탕을 먹으며 위로받는 장면은 단순한 식사 장면이 아니라, 한국인의 ‘음식’으로 위로받는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첫 장면부터 등장하는 냉면 또한 공동감독이 자 시나리오 작가의 가족사가 투영된 상징적 음식이다. 북한 출신 가족을 둔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에게 냉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고향의 기억’이었다.

이처럼 K팝 데몬 헌터스는 한식을 단순한 소품이 아닌 ‘문화의 서사적 매개체’로 활용한다. 음식의 맥락과 정서를 함께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식은 세계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음식’으로 영화 속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콘텐츠가 실제 K푸드 산업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K푸드의 위상이 더욱 올라갔다.

트레이더 조,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점에서 김밥, 잡채, 갈비, 떡볶이 등 한식이 인기를 끌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대미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드라마, K팝으로 시작된 관심이 콘텐츠 속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 음식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K팝 디몬헌터스는 한식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 공용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식이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이국적 음식’이 아니라,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음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K푸드가 실제로 글로벌화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증거다.

열린광장

7월은 역동적인 용양호박의 달



윤경중
연세목회자회
중경회장

태한 달이기도 하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 앨버머고도에서 몇몇 과학자가 원자폭탄을 실험했고, 이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한국어에는 영어, 불어처럼 7월을 부르는 고유한 이름은 없지만, ‘칠팔월’이라는 별칭이 있다. 또한 “칠월 장마는 꾸어서라도 한다”(칠월에는 오래 장마가 있다는 뜻)는 격언과, “칠팔월 은어 굶뚱”(수입이 줄어 살기 힘들다는 뜻)이라는 7월이 들어간 속담도 전해져 내려온다.

숫자 ‘7’이 들어간 훌륭한 격언이나 어휘도 제법 많다. ‘칠종칠금(七縱七擒)’은 마음대로 잡았

다 놓아주는 비상한 재주를 일컫는 어휘이며, 사업이 계속 실패하거나 잇따른 불운으로 감회를 못 잡는 마음을 일컫는 말은 ‘칠령팔락(七零八落)’이라 한다.

7월 1일 프랑스에는 세 명의 유명인이 탄생했다. 1725년에는 미국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을 돕기 위해 장병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온 로삼보 장군이 태어났다. 또한, 1969년 7월 20일에는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걸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큰 사건 가운데 잊지 않는 것은 바로 군사정권 때인 1980년 7월 사형선고를 받은 뒤 미국의 도움으로 1982년 형집행정지가 되어 살아난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이다.

한편, 북한이 남침한 지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연합군과의 회담에서 한국전쟁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룩된 것은 7월이라는 달에 더욱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7월은 독립과 전쟁,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간의 도전과 역경이 교차하는 다채로운 역사의 현장이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미친 듯 몰입하는 엔지니어, 모험가 CEO가 한국에 있나

백우진의 퍼스펙티브

산업·경제 칼럼니스트



“엔비디아가 지금의 모습이 된 데에는 존 니콜스의 공이 큼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평가다. 황은 니콜스 관련 질문을 받은 다른 인터뷰에서는 표정이 굳어진 뒤 바로 화제를 바꿔버렸다.

니콜스는 컴퓨터 비디오 게임에 쓰여온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범용 슈퍼컴퓨터로 변환될 수 있게끔 했다. GPU는 정보 처리 역량은 뛰어났지만 그전까지는 다룰 수 있는 정보가 이미지에 국한됐다. GPU를 범용 슈퍼컴퓨터로 변환한 것이 니콜스 주도로 개발돼 2006년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Computer Unified Device Architecture, CUDA)이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책임자는 쿠다를 이렇게 설명한다. “한 쪽에 비디오게임 카드가 있어요. 그 위에 스위치를 달아요. 그 스위치를 켜 카드를 뒤집으면, 갑자기 그 카드가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죠.”

GPU를 슈퍼컴퓨터로 만든 쿠다

니콜스는 53세 때인 2003년 엔비디아에 합류했다. 출근 후 2주 만에 악성 흑색종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치료받는 동안에도 주 72시간씩 일했다. 그는 “쿠다가 궁극적으로 세상에 미칠 영향만큼 큰 발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완화된 흑색종이 재발했고, 그는 쿠다가 사업적으로 성과를 내기 전인 2011년에 타계했다. 니콜스가 거명되자 젠슨 황의 표정이 굳어진 이유다. 엔비디아는 그를 기리기 위해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 캠퍼스에 장학기금을 출연했다.

젠슨 황의 공식 전기인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를 번역하는 동안, 필자는 직·간접적으로 두 가지 화두에 집중했다. “엔비디아의 성공 요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상에 그렇게의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합치면, “엔비디아가 성공한 핵심 요인을 하나 뽑아내 한국에 이식하면, 그에 필적할 초우량기업을 키워낼 수 있을까?”

답을 정리하면서 처음 떠오른 인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5월 21일 타이베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Q&A’ 행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니콜스였다. 이어 쿠다를 통한 돌파를 위해 니콜스와 머리를 맞대고 몰두한 교수 출신을 비롯한 여러 엔지니어로 생각이 이어졌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엔비디아도 없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엔지니어들

여기서 잠시 쿠다의 하드웨어 기반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쿠다는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간다. 쿠다와 함께 엔비디아 GPU는 ‘쿠다 코어’로 분할·설계됐다. 병렬형 컴퓨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였다. 인텔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중앙처리장치(CPU)는 직렬형이다. 태백 트럭 한 대가 일일이 배송하는 방식이 직렬형이라면, 오토바이 기사 수십 명이 우편물을 나눠서 동시에 나르는 방식이 병렬형이다. 후자가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한다. 쿠다 이전, 엔비디아는 이미 1998년 병렬형 컴퓨팅을 GPU에 일부 구현했다. 병렬형 컴퓨팅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포기된 지 오래된 때였다. 니콜스를 필두로 병렬형 컴퓨팅 완성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엔지니어들이 속속 엔비디아에 집결한 배경이다.

한국은 반도체 중 메모리에 주력해왔고, 엔비디아의 영역인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다. 추격과 혁신은 모두 두뇌에서 나오는데, 한국의 반도체 전문 인력은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년 배출되는 반도체 석·박사 수에서도 대만에 밀린다. 니콜스와 그의 동료들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는 엔지니어들이 지금 한국에서 다수 나올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불가능

해진다. 엔비디아의 성공에는 외부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교수의 연구팀이 이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다. 힌턴 연구팀이 정체돼 있던 AI를 일깨우자, 이후 AI의 지능이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속도로 개발됐다. 이는 오픈AI 설립으로 이어졌고, 쿠다로 준비하고 있던 엔비디아는 2016년 오픈AI에 슈퍼컴퓨터 DGX-1을 공급한다. 이후 챗GPT 등 생성형 AI는 엔비디아의 집과 나란히 고속 성장한다. 힌턴 연구팀은 두 천재가 힌턴의 제자로 합류하면서 날아올랐다. 구소련 출신인 알렉스 크리제브스키와 일리아 수츠커베였다. 이들이 없었다면 AI의 상용화가 몇 년 뒤로 늦어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행동주의 투자 펀드에 공격받던 엔비디아는 쿠다를 포기했을 수 있다.

요컨대 두 천재가 없었다면 현재의 엔비디아도 없었는지 모른다.(AI는 엔비디아를 논외로 하더라도 중요하다.) AI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토양은 행렬과 벡터 등 수학을 중심으로 한 수월성(秀越性) 교육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8년에 행렬·벡터를 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제외했다. 더구나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 중등교육은 수월성보다는 시험 문제의 수월함에 더 치중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를 10개 더 만든다는 계획은 효과를 거두더라도 수월성을 높이기보다는 중간층을 두텁게 한다. 답시크를 만들어낸 원평을 배출한 중국 항저우의 저장대학만 해도 연간 예산이 서울대의 3.5배나 된다. 성공 사례를 분석할 때 단순화

는 경계해야 한다. 성공 사례는 대부분 여러 요인이 두루 어우러진 결과다. 어느 하나가 결여된 경우 성과에서 멀어진다. 이는 식물이 필수 요소 중 하나만 없어도 자라지 못한다는 ‘리비히의 법칙’에 비유할 수 있다. 불가결한 또 다른 요인은 엔지니어들의 미친 듯한 몰입이다. 니콜스를 포함해 쿠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들은 양과 질 두 측면 모두에서 일에 푹 빠져서 지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금요일 밤 떠올라”

발견과 발명에서 몰입의 힘은 술한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 벤젠의 분자 구조를 규명한 화학자 케쿨레는 꿈에서 계시를 보았고, 세계 최초로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를 개발한 나카무라 슈지는 학회에서 들은 구절에서 결정적 힌트를 얻었다. 영감의 필요조건은 시간 투입이다. 한 가지 과제를 붙들고 긴 시간 집중해야 영감이 떠오른다.

엔비디아의 엔지니어들도 몰입의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을 얻었다. 그런 경험을 이 회사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디렉터 아르준 프라부는 이렇게 들려줬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금요일 밤에 떠올라요. 말 그대로 꿈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죠.”

한국은 어떤가. 주 52시간 근무의 탄력 적용이 논의만 될 뿐이다. 격변하는 기술 지형에서 세계적으로 시간과 몰입의 경쟁이 치러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주 4.5일 근무제가 검토되고 있다.

편집광이자 워커홀릭, 젠슨 황

엔비디아의 중심에는 젠슨 황이 있다. 이 글에서 그를 이렇게 뒤에 배치한 것은 그의 역할이 덜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다. 간과되어 온 다른 인물과 요인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 그와 같은 최고경영자(CEO)가 나올 수 있을까?

젠슨 황의 감점 또한 한둘이 아니다. 20대 때부터 리더십으로 인정받았고, 일을 즐기는 워커홀릭이며, 늘 새로운 모험을 찾는다. 그가 노리는 것은 고만고만한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신규 시장이다. 그는 이를 ‘제로-빌리언 달러 시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새 시장을 남보다 앞서 포착·선점하기 위해 정보통신(IT) 업계 리더 중 누구보다도 많이 사내의 사람들과 소통한다. 학습 역량도 탁월하다. 그래서 첨단 기술 동향을 바로 이해한다. 핵심 과제를 잡은 뒤에는 무섭게 파고들어 그 분야 최고수 수준이 된다.

엔비디아는 인텔을 몰아내고 IT 산업의 권좌를 차지했다. 인텔의 전성기를 이끈 경영자 앤디 그로브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고 역설했다. 그로브의 ‘편집광’은 변화의 단조를 ‘적’에 파악해 대응하는 기업가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젠슨 황은 ‘조기’의 편집광이다.

혁신 엔지니어 채용해 전권 부여

편집광 젠슨 황은 늘 안테나를 높이 세웠다. 세계 최초이자 의미가 큰 혁신을 꿈꾸는 사내의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수신했다. 병렬형 컴퓨팅을 필생의 목표로 잡은 두뇌들이 그에게 연락하고 제안했다. 그는 그들을 채용하고 발탁했으며,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전권을 부여했다.

그만의 특별한 접근은 시장을 먼저 보고 기술을 개발하는 순서가 아니라, 기술을 우선 성공시킨 다음 고객과 시장을 찾아 나서는 수순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쿠다 개발과 DGX-1 공급 사이에는 10년의 큰 시차가 있었다. 행동주의 투자 펀드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이 공백을 꽂듯하게 버틴 독심도 그의 강점이다.

젠슨 황은 ‘광속 경영’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서 ‘광속’은 가능한 최고 속도나 목표를 뜻한다. 그는 ‘광속’을 기준으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현 단계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을 엔비디아라는 ‘광속’에 비추어 돌아보는 작업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연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시 설

유감스러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거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각료 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며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 (미국은 한국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7600억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상호관세(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한 다음 날 방위비 증액을 주문하며 두 가지를 일괄 해결하겠다는 ‘원스톱 쇼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여건상 자국의 국방비 감축을 시도하려는 입장은 이해할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옛 소련의 사회주의 확장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정도로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했으니 한국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압박은 유감스럽다.

특히 한-미가 내년 1조5192억원으로 확정된 기존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백지화하려

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외교부는 어제 “(지난해 10월 서명한) 기존 합의를 준수하며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혹시 미국이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통해 자국 산업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안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1기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하며 군사 위성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비용에 포함하는 등 ‘작전 지원비’를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마땅한 인상 명분이 없자 억지로 항목을 만든 것이다. 트럼프가 2만 8500명 안팎인 주한미군의 숫자를 4만 5000명이라 부풀리는 것도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연 100억 달러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4301억원)의 9배가 넘는다. 미국이 억지스러운 항목을 또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방문했던 워싱턴 안보실장이 어제 “국제적인 흐름에 따를 수도 있다”고 했듯이 한·미 동맹이나 국제 정세를 고려해 국방비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불러놓고 깎는 식의 흥정에 끌려가선 안 된다.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요구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올해의 9배 넘는 100억 달러 제시
관세 협상 감안하되 무리한 요구 차단해야**

AI 혁명의 성공과 실패, 향후 3년이 관건이다

지난 3일간 본지에 연재된 ‘평화 오디세이: 중국 AI혁명 현장을 가다’는 미국의 제재를 뚫고 일어서는 중국 AI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샹하이-항저우’ 일대에는 이미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중국 혁신기업들이 가득했다. 항저우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는 이미 모바일 결제와 온라인쇼핑몰·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생활 속 공기 같은 존재였다. ‘중국인들은 외출 중에 지갑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다’는 말이 모든 것을 대변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역량은 1위인 미국 다음이다. 지난해 영국 토러스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 100점을 기준으로 중국은 53.88점이다. 미국에 한참 모자라는 2등이지만, 최근의 성장세를 보면 그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추론형 AI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한 딥시크의 충격적 모습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AI 생태계 공약을 노리고 있음을 증명했다. 딥시크와 함께 ‘항저우 6소룡(小龍)’으로 불리는 딥로보틱스·브레인코는 AI가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AI 플러스’의 롤모델이었다. 첨단 4족 로봇과 스마트 의족·의수는 이미 세계 시장에 팔리고 있었다.

중국 AI 혁명의 성과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방위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2017년 바둑 세계

1위 커제 9단이 알파고에 물러난 이후 국가 차원에서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AI를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두터운 AI 인재와 인프라 구축은 그런 축적의 시간의 결과다.

평화 오디세이 방문단의 결론은 ‘그럼 우리는?’이다. 이재명 정부는 제1 공약으로 ‘AI 3대 강국’을 천명했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최소 5만 개 이상 GPU 확보, 국가 SOC 차원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가뭄에 단비 같은 공약이 가득하다. 다행히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AI플러스’ 토양이 어느 나라 못지않은 점도 희망적이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 주문한다. 혹여나 AI 3대 강국 실현에 정치와 이념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의 AI 역량은 27.26점으로 세계 6위다. 갈 길이 멀다. 전력은 AI 강국의 핵심 인프라다. 기후 위기에 재생에너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간 민주당의 모습처럼 탈원전에 집착해선 안 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직은 몰라도 머리를 써야 하는 지식산업인 AI에서 주 52시간으로 경쟁하긴 힘들다. 항저우·샹하이의 혁신기업들은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이 일상이다. 리더십과 실천은 정부 출범 후 3년간이 관건이다. AI 3대 강국이라는 별의 순간을 소망한다.

“그는 더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안철수가 다시 ‘철수’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지만 인적 청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닷새 만에 물러나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식 혁신이 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윤’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6월 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퇴장이 예고편이었다.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에서 가장 신선했던 것은 당내 최연소인 1990년생 김용태의 비대위원장 발탁이었다. 윤석열 탈당을 이끌어낸 주역도 김용태였다.

그는 대선 패배 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당론 결정 시 당심·민심 모두 반영 ▶100% 상향식 공천 실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상식의 잣대로 보면 하나도 무리한 게 없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화’와 ‘쇄신’이 싫거나 두려웠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위헌적 계엄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에서 이미지 좋은 청년 정치인이 필요했던 거고, 결국 그를 ‘포장지’로 쓰고 내쳤다. 김용태의 개혁안도 못 받으면서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에 앉힌 건 결국 진짜 혁신보다 혁신한다는 선전을 위한 것 아니었을까. 안철수의 뒤를 이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됐지만, 친윤의 벽은 건재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뒤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4일 발표)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 더불어민주당은 4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2%.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 정권은 일을 했고,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엔 대략 세 가지가 없다. 참회, 절실함, 보수의 신념이다. 보수정당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다.

우선, 참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풍문동화의 위기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었고, 무엇보다 16대 대선에서 800여억원의 대선자금에 ‘차떼기’ 등 불법으로 모은 것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여의도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불법자금을 갚겠다며 당사를 여의도 공터의 천막당사로 옮겼다. 풍문노숙(風餐露宿)의 진정성이 평가받으며 17대 총선에서 기자회견(121석)했고 ‘선거의 여왕 박근혜’ 시대로 이어졌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참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백서조차 내지 않는다. 정계 은퇴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인물 역시 없다.

두 번째, 절실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지리멸렬했다. 그 와중에 터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놓고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며 문 정권을 압박했다. 결국 도입된 드루킹 특검은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 기소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정권의 도덕성을 뒤흔들었다. 지금 국민의힘엔 진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는, 김성태와 같은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끝으로, 보수 정당에 필요한 신념. 국민의힘은 그토록 반대했던 현금(민생지

**국힘, 김용태·안철수 혁신 거부
참회·절실함·신념 보이지 않아
‘냄비 속 개구리’ 처럼 기득권 안주**

원금) 살포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대선 후 180도 바꿨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다. 진보 정권이 나랏돈으로 선심을 쓴다면 보수 야당이라도 재정 걱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상법만 해도 1400만 개인 투자자 때문이라는 데, 그럼 대선 전에 왜 그렇게 반대했나.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은 빈말이었다. 이렇게 설득력 없이 표변하면서 앞론 무순 명분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구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에선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혁신에 절박하지 않은 것은 다음 총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끓는 냄비 속 개구리”가 따로 없다. 그러나 보수의 양심과 정신을 잃은 그들을 보수층이 지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요즘 보수층에선 이런 말이 부쩍 많아졌다. “그는 더 망해 봐야 정신 차린다.”

수석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자재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도장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재)제재시약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社,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품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7월 SUMMER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성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들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 온열 지압 카우치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폼'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퀵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딩 지정 대리점

월딩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절찬리 판매중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거품을 채우고 찜질을 보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리터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염 등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 **\$129**

NURIEYE-5800
 EYE MASSAGER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피로한 눈, 뻑뻑함,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129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봉 매트
 2020년 최우수 브랜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JULY 10th - JULY 17th, 2025



Rich Soy Soup
진한 콩국물

32 FL OZ X 4 EA/PKG

LIMIT 2

\$8.99



살림 비책 Soapy Disposable

Dishwashing Scrubber
살림비책 한장수세미

40 SHEETS X 3 EA/PKG

~~\$14.99~~

\$8.99



Pre-soaped for easy dishwashing and cleaning.
세제 일체형으로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가능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MADE IN KOREA
LIMIT 4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JoongAng Ilbo Thursday, July 10, 2025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담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첫 주택 소유, 임대보다 2배 비싸다

'존 번스 리서치' 보고서
모기지·보험료·HOA 반영
20년 만에 첫 100% 넘어
월평균 1091달러 더 부담
LA는 임대보다 78% 높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엔트리 레벨 주택 소유 비용이 렌트보다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첫 주택을 마련하는 비용이 월 임대료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바인에 위치한 부동산 전문 조사회사 존번스리서치앤컨설팅(JBRE)은 지난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엔트리 레벨 주택의 월 소유 비용이 평균 아파트 임대료의 101%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엔트리 레벨 주택은 일반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선택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5% 계약금과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세금, 보험료, 연간 약 0.85~1.25% 수준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계산했다.

LA 지역 주택 임대·구매 비교

구분	월 렌트비	월 소유 비용	차액
2베드룸 주택	3612달러	6454달러	2842달러

자료: 존번스리서치앤컨설팅

JBREC는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임대할 때보다 전국 기준 월평균 약 1091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적 평균 프리미엄인 월 233달러의 약 4배 수준이다.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모기지 금리가 6% 중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입 비용은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LA 주택 보유 기간별 수익률

보유 기간	수익률 (ROI) 추정
7~9년	약 50%
9년 8개월	53.7%
10년 이상	60~70%

자료: 질로

LA 지역은 구매와 임대 간 격차가 78% 수준이었다. LA에서 2베드룸 주택을 임대할 경우 월평균 3612달러가 소요되지만, 동일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면 월 모기지·세금·보험을 포함해 6454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매달 약 2842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구매보다 임대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구매자들이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거나 장기적으로 임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방향이 주택시장 안정에 핵심 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단독 주택 중간 매매가는 46만2206달러로 전년 대비 0.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임대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세를 보였다. 5월 전국 평균 임대료는 1633달러로 1년

JBREC는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주택 구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임대

지 금리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 주택소유주연합(HOA) 회비 증가, 보험료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주택 소유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보다 1% 하락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다세대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난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임대료가 9%나 떨어져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JBREC는 팬데믹 이후 주택 소유와 임대 간 비용 격차가 갈수록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2020년에는 주택 소유가 임대보다 39% 더 비쌌지만, 2021년 44%, 2022년 78%, 2023년 93%, 2024년 97%로 계속 확대됐다. 올해는 101%로 치솟았다.

JBREC는 이 격차가 앞으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년에는 주택 소유 비용이 임대보다 91% 비쌀 것으로 예상했고, 2027년 93%, 2028년 9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JBREC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언제쯤 다시 주택 구입이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투표에 참여한 약 450명 중 42%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30%는 3~5년 뒤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16%는 2년 내 가능하다고 답했다. 12%는 “2031년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법률 자문회사 리걸윌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 우려로 주택 소유자와 예비 구매자 70% 이상이 향후 경제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택 압류 관련 법률 상담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우려는 주택 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레드핀은 올해 말까지 집값이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널드 센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나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95 (교재비: \$100) **5주 속성반**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나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파관반 모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버지니아

- 1.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골집, 아주 넓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 2.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바닥
- 3.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 4.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메릴랜드

- 1.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 2.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 2. \$1,075,000 포토크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크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DC

-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이젠 집에 나무 하나도 안 쓸끼다”

산청·하동 산불 뒤 100일, 현장 가니 6억 피해 이재민 “불 안타는 걸로” 불탄 집 복구 중, 추석 전 완공 목표 “산불 피해 성금 54억, 큰 도움”

“원래 원목 집이었는데, 지금 짓는 집 외관엔 나무를 항해도(하나도) 안 쓸끼다. 돌하고 기와를 쓰고, 외장도 불연재(不燃材)로 할끼다. 오로지 불에 안 타는 걸로!”

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의 6~7부 능선에 있는 한 주택 복구 현장. 피약별 아래 인부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있던 A씨(60대) 부부는 이같이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1일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재민이다. 강풍과 함께 불길의 확산한 다음 날 오후, 화마(火魔)가 최초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6km가량 떨어진 A씨 부부의 집을 덮쳤다. 5년 전 부산에서 귀촌한 부부의 보금자리인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 집부터 세간살이까지 약 6억원이 들어간 집이었다.

그때부터 이날까지 A씨 부부는 임시거주시설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달 24일에야 주택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불탄 잔해를 모두 걷어낸 집터엔 현재 새집의 뼈대가 될 경량 철골이 서 있다. 새집 규모는 99㎡(약 29.9평)로 총 복구비는 2억 4000만원이라고 했다. 완공까지 두 달 반 정도 걸릴 전망이다.

산청·하동 산불이 잡힌 지(3월 30일) 이날로 100일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적지 않다. 새카맣게 불에 탔던 산림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주택은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다. 경남도·산청군·하동군에 따르면 7일 현재 산청·하동 이재민 각각 23명(15가구)과 2명(1가구)이 임시 시설에 거주 중이다. 친척 집 등에 머무



는 이재민도 몇몇 있다.

산불로 전소된 산청 지역 주택 26동 가운데 16동은 집 주인이 복구의 의사를 밝혔다. 4동은 건축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12동은 설계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동 중 5동은 비용 문제 등으로 주택 복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다른 5동은 다른 지역에 집이 있다는 등 이유로 집을 복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동 2가구 중 1가구는 주택 설계에 들어갔고, 나머지 1가구는 새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경남도 등 지자체는 추석 전까지 주택을 완공하는 게 목표다. 산불 피해 주택 면적이 대다수 20평 내외로, 착공에 들어가면 2~3개월 이내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걸림돌은 주택 복구 비용이다. 지자체는 경량 철골로 설계하면 평당 600만~70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평이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든다. 하지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8000만~9600만원(추가 지원금 6000만원 포함)으로, 수천만 원이 부족하다. A씨처럼 30~40평 규모였던 집을 같은 크기로 다시 지으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지난 3월 산불이 덮쳤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7일 주택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새 출발’을 상징하듯 인근 외곽마을의 불탄 소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있다(아래 사진). 안대훈 기자

에 없다. A씨 부부는 “재난지원금만으론 부족해, 장기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행히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산청 약 53억원, 하동 1억 4800만원의 이재민 성금이 모였다. 성금이 분배되면 주택 복구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자체는 내다봤다. 또 건축사회는 보통

500만원 수준인 설계·감리비를 50% 감면, 토목용역협회는 1건당 100만원 감면해 주기로 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다. ‘경남간고’ 학생들은 앞서 지난 5월 산불 피해를 당한 마을을 찾아 주민 혈압·혈당 측정, 건강 상담 등 봉사 활동을 펼쳤다.

안대훈 기자

가주 노숙 학생 9.3% 급증

조사 방법 개선 후 식별 늘어 연방 교육 지원금 중단되면 주거 불안정 학생 증가 우려

가주 내 노숙 학생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 학생 증가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관련 지원금을 중단하려는

우기 가운데 더욱 심화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가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4-2025) 가주 지역 노숙 학생은 23만 443명이다. 이는 전년(21만 900명) 대비 약 9.3%가량 증가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캠퍼터스는 여전히 노숙 학생에 대한 과소 집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전국 노숙자 교육센터(NCHE)

는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자격 학생의 5~10% 정도가 노숙 학생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가주 기준 최대 13만 명 가량이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숙 학생 문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구제책이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일시적으로 보완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에 상담 인력 배치와 교직원 교육 등을 위해 8억 달러를 제공했다. 대부분의 가주 학교가 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노숙 청소년 지원법

인 ‘맥키니-벤토(McKinney-Vento)’ 법 보조금을 통해 가주 내 약 120개 교육구에 1590만 달러가 통학비, 학용품, 인력 고용 등에 쓰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이 최근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노숙 학생 증가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승인한 예산안에는 맥키니-벤토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프로그램 규모가 축소될 위기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예산이 끊겼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셉 비숍 UCLA 교육학과 교수는 “가주는 노숙 학생 위기 중심지”라며 “지금이야말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팬데믹 이후 악화된 주거난과 더불어, 노숙 학생 식별 시스템 개선이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커트 윌리엄스 칸카운티 교육청 노숙 및 위탁 청소년 서비스 국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노숙 학생 설문 조사 방법이 바뀌면서 자신의 거주 상황을 드러내기 시작한 학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도쿄 한복판의 우에노 공원은 에도 시대 도쿠가와 가문의 영묘와 사찰이 있던 장소였다. 19세기 중반 내전으로 폐허가 된 터에 최초의 국제박물관을 개최했으며, 이후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대학과 음악당이 들어서 도쿄 문화예술의 산실이 되었다. 그 가운데 국립서양미술관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남긴 걸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세기 초 가와사키 중공업의 회장 마츠카타 코지로는 1차대전의 와중

에서 조선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유럽 현지에서 미술품 수집에 열중했다. 프랑스 정부가 강제 소유했던 파리의 소장품들은 2차대전 후 프랑스-일본 우호의 상징으로 일본에 반환됐다.

단, 프랑스가 지정하는 전용 미술관 건설을 조건으로 달았다.

1959년 개관한 이 미술관은 르코르뷔지에가 발명한 ‘무한 성장하는 미

술관’ 개념을 구현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급증하는 컬렉션으로 끊임 없는 확장이 필요한 전시 시설을 위해



무한 성장의 꿈,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그는 암모나이트처럼 원시적으로 성장하는 미술관 개념을 제시했다. 도쿄 서양미술관 2층의 주 전시실은 4개의 길쭉한 방을 바람개비 모양으로 90도씩 회전 배열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전시실들을 띄우고 중앙홀에 큰 경사로를 두어 2층 전시 공간의 입구로 삼았다.

즉 중심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연속 확장하는 개념이다. 그는 인도

아메다바드와 찬디갈에 유사한 개념의 미술관을 계획했으나 도쿄의 것이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된다.

가는 기둥으로 구획된 4개의 전시 공간은 돌출된 내부 테라스와 함께 입체적으로 엮여지고, 피라미드 천창(天窓)에서 내려오는 빛은 공간의 유동성을 극대화해 르코르뷔지에 특유의 시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발명된 개념과 감추어진 원리들, 그리고 감성적 연출이 소중한 컬렉션과 함께 진한 감동을 주는 공간이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8512 Pine Spr, Severn, MD	UNDER CONTRACT	\$650,000	2.75% 군인 용자 그대로 이어번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8/18 세들먼트 완료
1631 Cecile St, McLean, VA	SOLD	\$1,420,000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들먼트, 주인 (셀러) 이름으로 유틸리티 오픈할 필요 없음 7/1 세들먼트 완료
1930 Battery Park, Vienna, VA	SOLD	\$1,315,000	여러 오피스 경쟁 출고 특별, 이기는 오피스 자신 있음. 5/20 세들먼트 완료
2325 9th St, S, Arlington, VA	SOLD	\$925,000	5/23 세들먼트 완료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OLD	\$501,000	복수 오피스 빌딩 리스딩 가격보다 높은 오피스 선택, 3주만에 세들먼트 완료 3/21 세들먼트 완료

갤럭시부동산

최신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여름/가을에 따른 나을 주택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7월 말-8월 초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NEW 즉시 입주가능	\$3,600 4층, 차고 2타운홈, 넓은 침, 관리실, Willow Woods ES
3484 Beale Ct, Woodbridge, VA	NEW 7/20 입주가능	\$2,100 2층 타운홈, 방 3, 욕 1.5, 부엌 리모데링, 교통 상권 편리
6830 McLean Province Cir, Falls Church, VA	NEW 8/1 입주가능	\$4,300 3층, 차고 1 타운홈, 지하층, 방 4, 욕 2, 관리실, Haycock 초-중등교육권, 역세권
8812 Higdon Dr, Vienna, VA	NEW 8/1 입주가능	\$4,950 3층, 차고 2, 방 3.5, 욕 2, 관리실, West Falls Church 메트로 걸어서 5분, 안전하고 좋은 단지, 99% 마무
6867 Williamsburg Pond Ct, Falls Church, VA	NEW 8/1 입주가능	\$4,950 3층, 차고 2, 방 3.5, 욕 2, 관리실, West Falls Church 메트로 걸어서 5분, 안전하고 좋은 단지, 99% 마무
1498 Hampton Hill Cir, McLean, VA	NEW 7/10 입주가능	\$5,500 방 4, 욕 3.5, 맥클린 내 유일하게 수영장 있는 단지, 맥클린 다문화권, 교통/상권 편리
3092 Southern Elm Ct, Fairfax, VA	NEW 2년 7/15 입주가능	주채널 마켓에 언 내고 영성해로 보아주고 현명, 경쟁에서 바로 입주 예정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의 30여제 더 있음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뿔뿔)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주가 최고치 경신했지만 실물경기 약화 뚜렷

7월 금융시장 분석

2025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지수와 강한 리스크 선호로 활황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산별 상승의 비대칭성과 실물경제의 약화 조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주식, 신용, 대체자산, 실물 및 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데이터와 시장 심리를 종합 분석하고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잠재 리스크를 조망해본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투기적 버블의 징후가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식시장과 시장 심리

국내 주식시장은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지수들의 흐름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밸류 라인 지수, 러셀 2000, S&P 미드캡 400 등은 고점을 넘지 못했다. 다우 운송지수와 다우 유틸리티 지수 역시 고점에서 떨어진 상태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대형주 밸리로 인해 시장의 상승은 일부 종목에만 편중된 상태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고점'은 역사적으로 시장 반전의 전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 심리는 극단적 낙관에 치우쳐 있다. '하락 시 매수(Buy the Dip)' 전략이 일종의 교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과 옵션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CBOE의 변동성 지수(VIX)는 2024년 2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며 시장 내 공포심리가 사실상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배 레버리지 ETF의 운용자산은 전년 대비 두 배, 2023년 중반 대비 10배 증가해 투기적 거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콜옵션을 매수하고 하락 시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 퍼지고 있으며, 이는 극단적인 위험 선호의 전형적 모습

기술주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지수 상승, 과도한 낙관 만연 암호화폐·비상장 주식·수집품·부동산 등 대체자산 투자 많아 주택·고용 시장 둔화세...예술분야도 투기에서 신중론 급변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내실 있는 리스크 관리 필요

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열 징후들

ETF 시장의 과열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상반기에만 361개의 ETF가 새로 출시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92%는 액티브 ETF이고, 약 33%는 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부 ETF는 S&P 500보다 4배 이상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 관련 두배 레버리지 ETF는 S&P 500보다 30배나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IPO 시장 역시 극도의 투기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최소 3개의 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뉴스맥스의 IPO가 첫날 735% 급등

한 바 있다. SPAC 시장도 다시 활황을 보인다.

2025년 들어 새로 상장된 SPAC 수는 2023년과 2024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 심지어 과거 실패한 SPAC 운영자들까지 다시 시장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의 위험 감소 성향이 극도로 둔감해졌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다양한 위험추구 현상

리스크 선호 경향이 두드러진 분야로 우선 자산배분 흐름을 들 수 있다. 기존의 60/40 포트폴리오 전략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밀레니얼 및 Z세대 투자자들은 IPO 전 주식, 암호 화폐, 부동산, 수집품(collectibles) 등 전통적이지 않은 자산

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블랙스톤이나 아폴로 등 대형 사모 펀드사들은 최소 투자금액을 5000달러 수준으로 낮춘 상품을 출시하며 소매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블랙록은 자사에서 제공하는 401(k) 퇴직연금 솔루션에 비상장 자산을 포함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유동성이 낮고 복잡한 대체자산이 점점 더 일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크레딧 시장에서도 극심한 위험 추구 현상이 관찰된다. 유럽의 정크본드 발행액은 6월 한 달 동안 225억 유로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CCC 등급의 초저신용 채권들조차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내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1월에 5.13%였으나 4월에는 8.5%까지 확대되었고, 6월 말에는 6.66% 수준을 보여줬다.

장기적인 사이클상으로는 2026년 가을까지 스프레드가 지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타 경기 흐름

주택시장은 둔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는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5월 신규 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13.7% 급감했다. 주택 건설업체의 35%는 6월 중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플로리다의 케이프 코랄 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약세를 보인다. 이 지역 주택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15.8% 하락했다. RV(레저용 차량)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2024년에는 판매가 44.4% 감소했고, 2025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도 약화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 졸업생들의 구직 성공률은 낮고 청소년(16~19세) 실업률은 1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P에 따르면 6월 민간부문 고용은 3만3000명 감소해 2년 만에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했다.

여름철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은 2010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 시장에서도 경기 순환의 정점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 예술지수는 2023년 8월 고점 대비 29.5% 하락했고, 중저가 작품의 경매 매출도 크게 줄어 들었다. 이는 투자자의 이탈과 함께 예술 시장의 분위기가 투기에서 회의로 급변했음을 보여준다.

주식시장과 크레딧시장, 부동산, 예술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 전반에 걸쳐 극단적 낙관, 위험감수 확대, 투기적 버블의 징후가 병존하고 있다. 이면에서는 경제 실물지표가 약화하고 있으며 소비·고용·부동산 등의 실물 경기는 둔화하고 있다. 겉으로는 강한 밸리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협소한 밸리와 과도한 레버리지, 극단적 낙관 심리가 주도하는 구간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환경은 조정이나 전환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은 공격적 포지셔닝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자산배분, 레버리지 및 고변동성 상품 회피, 실물경제 연계 자산 재평가 및 재배치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유행을 좇기보다는 냉정하게 포지션을 재조정하고 다음 사이클에 대비해 방어적이고 내실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켄 최애피스 자산관리 대표

베벌리힐스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추진

베벌리힐스 지역 내 주택 단기 임대 금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베벌리힐스 시의회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청회를 거

쳐 오는 15일 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시의회 의원들은 단독 및 다

구 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역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베벌리힐스 내 단독 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을 연 2회에 걸쳐 6개월 미

만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 주택을 통한 시끄러운 파티 등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왔다.

송영채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라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ED

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화2.5, 차고1, 굿 로케이션
수리중: BrandNew LVP Floor,
전체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

버크 싱글홈
\$1.25M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숲이 아름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2021년 연방수사국(FBI)과 경찰이 엘몬티에 있는 제일선행침례교회를 노린 폭발물 공격을 수사하고 있다. 이 교회는 LBGTQ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타깃이 됐다.

종교시설 겨냥 증오범죄 증가

반유대·반이슬람 특히 증가 유타 힌두사원도 충격 피해 가주에서도 지난해 증가 추세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과 주정부, 민간 단체 등의 집계 따르면, 교회와 성당, 모스크, 회당 등 종교시설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2023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교 신자를 표적으로 한 폭력과 재산 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FBI가 발표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증오범죄는 1만1862건으로 전년보다 228건 증가했다. 이 중 종교적 편견에 따른 범죄는 가주에서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406건으로 3% 증가했다. 반유대교 증오범죄는 289건에서 310건으로 7.3% 늘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한 96건이 보고됐다.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지난해 보고된 반유대교 사건이 9354건으로, 최근 10년간 약 9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42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지난해 전체 증오범죄가 소폭 감소했지만 반유대교 범죄는 12%, 반이슬람 범죄는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교적 편견에 기반한 공격은 올해 들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5월 21일 워싱턴 DC의 '캐피털 주이시 뮤지엄' 인근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숨진 사건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친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반유대 증오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5월에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가 공격을 당해 수천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에는 콜로라도주 불더의 한 유대교 회당에 화염병이 투척돼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앨라배마주에서는 교회 2곳이 이를 동안 연속적으로 침입과 파손 피해를 당했다.

CBS 뉴스는 FBI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종교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유타주 스페니시포크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인 '스리리라다 크리슈나 사원'이 며칠에 걸쳐 세 차례 총격을 받아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18일 사원 부지 남쪽에 위치한 라디오 방송국 건물도 먼저 총격을 받았고 일주일 뒤에는 사원 본관이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사원의 장식 아치가 부서지고 예배실 유리창이 부서졌다. 바이 워든 사원 대표는 현장에서 20~30개의 탄피가 수거됐다고 밝혔다.

워든 대표는 "충격을 받았다"며 "이건 단순한 낙서 수준의 기물 파손이 아니라 분명히 증오에 기반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먼 거리에서 계획적으로 사격했다고 보고 증오범죄로 수사하고 있다.

이 사원은 매년 수천 명이 참가하는 홀리 색갈축제를 개최하는 지역 명소로 지역사회와 관광객 모두에게 친숙한 곳이다.

연방 법무부는 증오범죄 대응에 나섰다. 하트 딜론 연방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국적과 종교 등을 차별해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범죄는 미국의 정의와 평등 원칙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강력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종교시설 안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24 회계연도에 종교시설 보호 지원금으로 4억5000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뉴욕주와 미시간주 등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순찰을 늘리고 지원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재향군인부가 반기독교 편향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증오범죄 건수는 일부 지역에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폭력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폭력 예방 교육과 법 집행,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격을 당한 종교기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크리슈나 사원의 워든 대표는 공격 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워든 대표는 "사원은 성스러운 공간이며 피난처 같은 곳"이라며 "우린 몸을 숨기거나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고 회복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워든 대표는 인도 총영사관을 비롯해 국내외 언론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든 대표는 "회원들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사원은 밤에는 문을 닫되 낮에는 계속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유타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원 순찰을 늘리고 방범 카메라를 분석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 역시 "종교시설이 쉬운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대인 커뮤니티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콜라미 회당은 위협에 시달리다 보안 설비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경찰의 지원을 강화했다.

안유희 객원기자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강조

박검진의 종교 철학 여행

성 아우구스티누스 2

내면의 영혼서 진리 찾기 시작 중세 내내 지대한 영향 끼쳐 세속 군주와 투쟁 때 영향력

기원후 410년에 로마가 고트족에게 함락되자, 이교도의 관점에서 재난의 원인을 '주피터'를 외면한 것에서 찾았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교도들의 논증에 답을 해야 했고, 이것이 '신국(412~427)'을 저술하게 된 배경이다. '신국'은 중세 내내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으로, 특히 교회가 세속 군주들과 투쟁할 때 영향력을 발휘했다. '신국'은 로마가 고트족의 점령으로 약탈당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시작됐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이전 시대에 일어난 훨씬 더 참혹한 사건을 보여주려고 기획되었다.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가 약탈당하는 동안 고트족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침범하지 않은 교회에 많았다고 한다. 즉, 고트족은 절대로 야만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되레, 다른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약탈보다도 참혹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교의 영향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로마의 약탈 동안, 능욕당한 독실한 처녀들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 숙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다. 즉, 다른 사람의 욕욕이 그들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절은 마음의 덕이므로, 능욕당한 것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간음죄를 지으려는 의도로 잃게 된다고 했다. 만약, 능욕을 피하려고 자살했다면, 그것이 더 사악하다고 했다. 자살은 언제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같다. 단, 그들은 능욕당한 것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약 즐긴다면 죄를 짓는 행위라고 한다. 마치 마조히즘을 통한 쾌락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는 플라톤에게 공감을 표하면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치켜세웠다. 다른 철학자들은 모두 플라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가령, 탈레스는 물과 함께,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와 함께, 스토아 학파는 그들이 말한 불과 함께, 불은 이전에 헤라클레이토스도 주장한 바 있다. 에피쿠로스는 원자들과 함께 떠나라고 했다. 즉, 플라톤에 대한 극찬이다. 여기서 언급한 철학자들은 모두 유물론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플라톤은 관념론자다. 유물론은 훗날 마르크스에 의하여 공산주의 이론으로 탈바꿈한다. 플라톤은 신이 어떤 신체도 갖지 않은 존재이지만, 만물이 신 때문에 존재함을 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플라톤학파가 '육화'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비판했다. 또한 플라톤은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 신을 숭배하지 않은 점은 비판했으나, 감각계는 이데아 세계보다 열등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신국의 본성에 대해서 그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라고 한다. 신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하면서, 더 높은 종교적 지식을 얻으려면 성서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세계가 창조되기 전의 시간과 공간을 알고 고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창조 이전에는 시간과 장소가 없었다고 무에서 유를 신이 창조했음을 강조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의 회의주의(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식론을 전파했다. 당시에 외부의 경험 세계에서 인식을 시작하던 회의주의자들과 달리 그는 내면의 영혼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했다.

물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이성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독백'에서 이성과 대화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느님과 인간(영혼)을 알고 싶어서, 지혜를 포착하기 위하여, 인간 영혼은 과연 불사불멸한 것인지 스스로 터득하고 싶다고 했다. 이성은 답하기를 "진리는 외치고 있고, 그 안에 자기가 거처하고 있다고, 자기는 불사불멸한다고, 자기가 거처하는 처소는 신체의 그 어느 죽음에 의해서도 박탈되지 않는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과 사람의 왕국을 비교하면서 사람의 왕국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열락져있는 나라라고 차별화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우승 학군 싱글홈

\$1,9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씨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탈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탈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애플러스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20년 경력의 탑 에이전트의 노하우가 남다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비키리 부동산,
부동산의 모든 문제를 내일처럼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03-231-5572 (카톡 상담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렉스 유
New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

부동산 권리와 제약

유치권·타이틀 문제 등 권리 범위 결정
권리 분석 통해서 안전장치 마련해야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땅과 건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와 제약이 얽힌 복잡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막연한 환상입니다.

다양한 '제한물권'이 작용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범위를 결정짓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한물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한물권 유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째는 유치권(저당권 등)입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상권(easement)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특정 목적(통행, 상수도관 매설 등)으로 사용할 권리로, 이웃의 경계나 공익적 필요로 인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등기 제한(deed restriction)입니다. 토지·건물 등기 시에 특정 제한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예를 들면 '공장설립 금지', '상가용도 불가' 등 미리 명기된 사용 목적 제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는 타이틀 문제(title)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분쟁이 존재하거나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입 전 반드시 소유권이 완전히 해결된 '클린 타이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아니라 '제한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고려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라이선스(사용허가)는 통상 소유자가 특정 용도로 일시적 사용을 허락해주는 권리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에 잠시 주차를 허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범은 옆집의 담장이거나 나무가 내 땅을 넘어와 있는 물리적 상태로, 자칫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과 라이선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선스는 일시적·제한된 허가지만, 지상권은 등기된 권리로 매매나 상속 시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지상권은 다시 '적극적 지상권'과 '소극적 지상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가 타인 토지를 특정 용도(통행·설치 등)로 이용하는 권리라면, 후자는 타인의 부동산에 일정 행위(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 신축 등)를 하지 않도록 제약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보통 등기에 명시(지상권 설정 등기),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상 필요에 따라 암묵적으로 성립하는 세 경로로 생성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건축물대장, 현장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 거래의 주요 분기점에서 제한물권과 지상권의 존재 및 효력을 명확하게 짚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가이드



제니스 박
콜드웰뱅크 베스트부동산

에스크로 문제와 대처법

계약서 서명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 발생해
에이전트가 소통 주도하고 양측 양보해야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면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용자 지연 또는 승인 거절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바이어의 용자가 제때 승인되지 않거나 아예 거절되는 경우다. 용자가 지연되면 셀러는 일정 차질을 겪게 되고, 바이어는 거래를 잃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바이어는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오퍼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대처법이다. 셀러는 오퍼 수락 전 바이어의 금융 상황을 에이전트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낮은 감정가

은행 용자가 필요한 경우, 감정가가 오퍼 가격보다 낮게 나오면 용자 금액이 줄어들고, 바이어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완해야 한다. 바이어가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 바이어는 오퍼 시 감정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겠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처해야 한다. 셀러는 수락 전 감정 리스크를 고려해 오퍼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리 요청과 협상

홈 인스펙션 이후 수리 요청을 두고 바이어와 셀러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

다. 바이어는 수리나 크레딧을 요구하고, 셀러는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 가장 좋은 대처법은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현실적인 조율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셀러는 경미한 수리는 양보하는 태도를, 바이어는 과한 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이틀 및 법적 문제

타이틀 리포트에서 채무, 세금 미납, 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 문제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에스크로를 지연시키거나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다. 셀러는 거래 전에 미리 타이틀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감정적인 반응과 커뮤니케이션 부족

부동산 거래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과정이다. 작은 오해나 전달 오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때는 에이전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과 계약서 중심의 대화를 이끄는 것이 좋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에스크로는 단순한 마무리 절차가 아니라, 여러 변수와 협상이 반복되는 민감한 시기다. 하지만 경험 많은 에이전트가 주도하고,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주 중산층, 내 집 문턱 넘는데 10년 걸린다

세후 연소득 평균 6만9140달러
중간 주택 20% 다운페이 마련에
10년 6개월 저축해야... 전국 2위
"수요 비례 공급 적고 규제 엄격"

가주에서 중간 소득 수준의 주택 구매자가 내 집을 장만하려면 10년 넘게 매달 1100달러 이상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석 업체 '리브 더 키 홈바이어스'가 최근 공개한 전국 중간 가격 주택 구매에 필요한 20% 다운페이먼트 자금 마련 소요 시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내 집 장만 종착점 마련에 10년 6

월이 소요됐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분석국(BEA)과 센서스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주의 주택 구매 여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중간 주택 가격이 지난 2023년 말 기준 72만5800달러, 중간 소득 소비자의 평균 세후 소득은 연 6만9140달러(월 5762달러) 수준이었다.

생활에 필요한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저축 가능 금액은 매달 1150달러로, 이 속도로는 주택 마련의 첫 단계인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모을 때까지 약 10년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전국에서 주택 구매가 가장 어려운 주는 하와이였다. 하와이의 중간 주택값은 84만6400달러에 달했으며, 세후 월평균 소득은 4857달러였지만 생계비

지출 후 매달 저축 가능한 금액은 고작 489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하와이에서는 중간 가격 주택 구매를 위한 20%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평균적으로 28년 10개월을 저축해야 해 내 집 장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리얼터닷컴의 해나 존스 수석 경제 분석가는 "가주와 하와이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지리적 제약과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가 주택 건설을 제한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고소득자나 세컨드하우스 구매 수요가 많은 시장인 만큼, 현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연방주택국(FHA) 승인 비영리단체 살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저축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운페이먼트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정부 보조와 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가주에 이어 유타에서는 주택 가격이 51만7700달러, 평균 세후 소득이 월 4670달러로 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8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조나의 경우 8년 4개월, 조지아와 오리건은 각각 7년 6개월이 걸렸다. 이어 플로리다, 네바다, 아이다호, 델라웨어 순으로 10위권에 올랐다. 모두 높은 집값과 상대적으로 낮은 여윗돈으로 인해 주택 마련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와이오밍은 중간 집값이 29만8700달러지만 세후 월 소득이 평균 6058달러로 2년이 채 안 되는 1년 11개월이 걸려 전국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가장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식 기자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주택 리빙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small>*Multi-Million Dollar Producer</small></p>	<p>UNDER CONTRACT</p> <p>Rockville MD</p> <p>싱글홈 \$759,000 방4, 화3</p>	<p>Bethesda MD</p> <p>싱글홈 \$1,295,000 방4, 화2/1</p>	<p>Gwynn Oak MD</p> <p>싱글홈 \$419,000 방4, 화3</p>
	<p>COMING SOON</p> <p>Elkridge MD</p> <p>타운홈 \$559,000 방4, 화3/1, 차고1</p>	<p>UNDER CONTRACT in 3 days</p> <p>Nottingham MD</p> <p>싱글홈 \$449,000 방3, 화2</p>	<p>COMING SOON</p> <p>Columbia MD</p> <p>타운홈 방3, 화2/1, 차고1</p>
	<p>《《《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p>		
	<p>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small>*Multi-Million Dollar Producer</small></p>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RENTED IN 3 DAY	RENTED	RENTED	RENTED	RENTED	RENTED
Columbia	Columbia	Odenton	Bowie	Pasadena	Germantown	Glen Burnie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월 \$1,750 콘도 방2, 화1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US이주투어** 41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가족, 친구에게 여행을 선물하세요! 아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마주 한국행 항공 아주가 답이다! 마지막으로 전화주세요! 최저가 비행기 티켓!

1-800-933-3011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본 상품은 LA출발 가격입니다. 타도시 출발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stagram usajutour.com

서울 02-522-8686 ■ info@usajutour.com ■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원, 토렌스, 가디나, 플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엘바인(전화요망) 등

41주년 무사고 아주투어가 소중한 추억을 응원합니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여행시기!

오늘 여행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한 오늘 여행으로! 아주가 소중한 추억으로 풍요로운 삶을 드립니다. 41년 무사고 아주투어! 고객의 안전은 아주의 신념입니다.

아주투어 상품구매시 텀블러 증정

해외여행을 구입한 모든 분들께 고급 텀블러를 드립니다! (배송 불가)

일본 북해도: 치토세,노보리베츠, 하코다테, 도야, 루스츠, 니세코, 오타루, 삿포로 등 모국단종: 서울, 춘천, 홍천, 속초, 인제, 평창, 원주, 내장산, 전주 등

단종 온천 일본 삿포로 6일 ▶10/18, 10/27 \$1599+항공료

단종 온천 일본 삿포로+모국단종 11일 ▶10/18, 10/27 \$3298+항공료

출발확정! 박평식 교수 동행

삿포로 온천: 북해도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자연속 온천 마을이 잘 발달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천연온천수가 솟아나, 빈혈, 냉한체질, 신경통, 근육통, 피부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단종의 특징: 일본의 최북단으로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가을이 시작되어 본토보다 10월 중순에서 11월초에 절정을 이룬다. 다양한 활엽수와침엽수가 만들어내며 단풍나무, 일본마가목, 은행나무, 자작나무 등 수종의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갈색 등 풍부한 색채와 상록 침엽수의 진한 녹색과 대비돼 더욱 화려한 단풍을 연출한다.

삿포로 4대진미: **가이세키**-일본 요리 예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전통 코스요리로 고급 료칸이나 전문점에서 맛볼수 있는 정찬요리다. 계절 식료로 가을엔 단풍 등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료와 플레이팅을 선보이는데 가이세키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를 넘어 일본의 자연과 문화, 미학을 경험하는 총체적인 다이닝 경험을 할 수 있다. **아키니쿠**-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일본식 고기구이로 일본 현지의 식재료와 조리법이 가미돼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가리비 요리**-일본은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여 신선한 가리비로 투명하고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다. 숯불이나 철판에 구워먹거나, 초밥으로 먹거나, 찜통에 찌거나, 바삭하게 튀김으로도 먹고, 가리비 밥이나 시원한 가리비 국물도 있다. **게요리 무제한**-싱싱한 게요리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가이세키, 아키니쿠, 대왕 가리비 요리, 게요리 무제한

삿포로만의 화려한 단풍! 아주만의 특별한 추억!

4대 진미를 맛보지 않고는 일본을 맛봤다고 말할 수 없다!

경험 많은 회사라야 안심입니다! 41년의 경험과 무사고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믿을만한 관광은 역시 아주투어!

\$600 할인 전신 북유럽/발트 7개국 14일 \$5999 ▶ \$5399 +항공료

7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8/5, 19, 9/2

\$800 할인 전신 북유럽 4개국 11일 \$4999 ▶ \$4199 +항공료

4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일정 1박2일 추가! 크루즈 2박 오션뷰! 스웨덴 항공이동! 전일정 특급호텔! 인솔자 동행

아주투어 북유럽, 왜 압도적인 선택인가!

- ① 노르웨이 체류 1일 연장, 오직 아주투어에서 저렴한 \$400로 1박 추가 선택!
- ② 크루즈 2박, 압도적인 오션뷰 업그레이드!
- ③ 베르겐 숙박 특전: 플리엔산 정상에서 만끽하는 북유럽 최고의 파노라마 뷰!
- ④ 시간은 금이다! 노르웨이/스웨덴 항공 이동으로 10시간 절약!
- ⑤ FOSSIL 호텔 티타임과 Voringfossil 폭포관광, 오직 아주투어만의 시그니처!
- ⑥ 북유럽을 가장 편안하게! 관광업자와 일일여행자 합승의 환상적인 경험!
- ⑦ 미식의 향연! 스시 뷔페 2회, 신선한 연어 사시미 특식 등 품격이 다른 특식의 감동!
- ⑧ 최고의 휴식! 힐튼 포함 특급호텔!
- ⑨ 세계 최고의 3대 피오르드(송네, 게이랑에르, 하당에르) 모두를 보여드립니다!

서유럽 11일 \$3399 +항공료

이태리일주 7일 \$1999 +항공료

▶7/29, 8/12, 9/2, 16, 30, 10/14, 12/21

▶7/12, 8/2, 16, 9/6, 20, 10/4, 18, 12/25

서유럽 5개국: 영국, 파리2박,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

일정: 베르사이유 궁전 내부 가이드 설명, 베니스 아주투어 단독 전세 유람선, 베니스의 명물 곤돌라 포함(70유로)

호텔: 런던-힐튼, 파리-폴만, 스위스-선스타(4성급 산장호텔), 로마-세라톤

식사: 전일정 호텔朝食, 옹파라우 해발 3454m서 중식, 스위스 산장호텔 석식, 파리 에스까르도 요리, 베니스 삼겹살특식, 피오렌티나 스테이크, 카르피 섬에서 중식, 로마 폴코스 해물특식

가이드: 20년 이상 경력의 아주전문 가이드 동행

아주투어는 전일정 초특급 호텔! 새로 지어서 냄새없는 파리 폴만 호텔 꼭 확인!

런던 1박(초특급 힐튼 호텔) | 파리 2박(초특급 Pullman Paris) | 스위스 1박(알프스산 바로 앞 초특급 호텔) | 밀라노 1박(초특급 호텔) | 볼로냐 1박(초특급 호텔) | 로마 3박(로마시내안 초특급 세라톤 호텔 숙박)

아주	타사
<p>아주! '스위스 동파리우로 오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르사이유 궁전 예약과 내부가이드 설명 2. 베니스 본섬 단독 전세 배로 이동 3. 베니스 명물 곤돌라(약 70유로) 포함 4. 광고와 동일한 각 지역 최고의 호텔 <p>런던: 힐튼, 파리: 폴만, 스위스: 선스타(4성급 산장호텔/\$500 상당), 로마: 세라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르사이유 궁전 입구만 가이드 후 개별 관광 2. 일반 대중 배로 이동 3. 베니스 곤돌라 선택관광 (70유로) 4. 광고와 다른 호텔인지 꼭 확인하세요! <p>런던 & 파리 & 로마 호텔 꼭 확인, 스위스: 2성급 호텔 (\$150 상당)</p>

동유럽/발칸 13일 \$3299 +항공료

크로아티아+발칸일주 9일 \$2599 +항공료

▶7/11, 8/1, 9/4, 18, 10/2, 16

▶7/15, 8/5, 9/8, 22, 10/6, 20

특급호텔과 현지 특식! 원천, 찹쌀부르그, 찹쌀카머트, 프라하야경, 브라티스라바, 부다페스트, 자그레브, 플리트비체, 니움, 두브로브니크, 모스타르, 블레드, 비엔나 등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2999 +항공료

스페인/포르투갈 11일 \$2499 +항공료

▶9/10, 10/1

▶9/9, 23, 10/15

고객이 강추하는 이유? 마드리드/바르셀로나 2박, 특급호텔, 모로코 5성호텔 보장, 편안한 대형버스, 친절한 가이드 마드리드, 톨레도, 푸에르토 라피세, 코르도바, 그라나다, 언덕위 하얀 지중해 마을 미하스,세비아, 파티마, 포르토, 까보다르가오, 몬세라, 바르셀로나 (탕헤르, 타리파, 셰프사우엔, 페스, 탕헤르)

완전 특가 튀르키예일주 10일 \$1999 ▶ \$1499 +항공료

튀르키예/그리스일주+산토리니 13일 \$3999 ▶ \$3499 +항공료

▶7/15, 8/5, 19, 9/16, 10/7

▶7/15, 8/5, 19, 9/16, 10/7

산티아고 순례길 9일 ▶9/16 \$2949 +항공료

대표 프랑스 길 서쪽 공식순례 증명서 발급! LAX 왕복항공 포함! 전문인솔자 동행!

NEW 특가 스위스일주+돌로미테 10일

인솔자 동행! NO 옵션! ▶9/15 \$5399 +항공료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아젤라트 방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특급호텔 노움선**

중앙아시아 3개국 12일

▶9/13 \$4499 ▶ \$3998 +항공료

출발확정! 박평식 교수 동행

특전: 인솔자 동행, 열차3회 포함, 전일정 특급호텔!

여행도시: 타슈켄트, 부하라, 비슈케크, 사마르칸트, 토크목, 출몰아타, 콜사이, 카라콜, 알마티 등!

우즈베키스탄 핵심투어 중앙아시아의 중심 타슈켄트, 실크로드 고대도시 사마르칸트,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하라&암각화 박물관,

키르기스스탄 핵심투어 푸른색 지구의 눈 이식쿨호수,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알라아르차 국립공원 트레킹,

베르멧 아이 온천욕

카자흐스탄 핵심투어 중앙아시아의 그랜드캐년 차른 케년, 일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 침몰락, 카자흐스탄의 진주 콜 사이호수, 나지르지반베기 패션쇼 석식 등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x US이주투어

대한노인회 미주 총연합회 단독일정, 5성 초특급호텔! 인솔자 동행! 각지역 맛기행!

회원 특가 모국단종+베트남 12일

▶10/26 \$2358 +항공료

특전: 대한노인회 미주 총연합회 단독일정, 5성호텔, 인솔자 동행, 초특급호텔, 각지역 맛기행, 지자체 민속공연, 도지사 만찬, 한방 무료검진, 이효석 문학관(메밀꽃 필 무렵 소설의 배경지), 전신마사지 2시간, 하노이 스트리크체험, 케이블카+대관람차, 단독유람선+시푸드, 업그레이드 식사

호텔: 잠실롯데 1박, 평창인터컨티넨탈, 원주 인터불고, 창원 엠베서더, 광주 힐리데이, 전주 라한호텔

코스: 청와대, 경복궁,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설악산 주전골, 오색약수터, 월정사, 유지업 산, 치악산, 문경새재, 속리산, 동의보감촌, 각 지자체 추천 단풍관광지, 강천산, 전주 한옥마을 & 역사박물관, 한국(용인)민속촌, 하노이,하롱베이 등

회원 특가 베트남 5일 \$658 ▶10/30 +항공료

회원 특가 모국단종 7일 \$1699 +항공료

▶10/22, 31

특전: 대한노인회 미주 총연합회 단독일정, 5성호텔, 인솔자 동행, 초특급호텔

코스: 하노이, 유람선 승선 후 3000여개의 작은섬과 석회동굴, 한국 투어 시작일 10월 24일! 베트남 투어 시작일 11월 1일!

연꽃바위, 하늘문, 낙타봉, 향루연, 티툼성, 테마파크, 호치민생가, 바딘광장, 한기동 시원, 선상 디너쇼 등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LA출발 비수가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 요금은 US이주투어 웹사이트 www.usajutour.com에 명시되어 있듯이 필수 서비스 Fee가 불포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

토트넘 SNS로 생일 축하 새 감독 부임, 행보에 관심 LAFC 이적설 등 소문 무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가 33번째 생일을 맞은 손흥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토트넘과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토트넘은 7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손흥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캡틴, 레전드, 손흥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날은 손흥민의 33번째 생일이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독일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10시즌을 보내는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33경기를 뛰고 127골 71도움을 기록하며 구단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가 됐다.

2018-2019시즌에는 토트넘을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놓았고, 2020년에는 세계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을 받았다.

2021-2022시즌 23골을 터트려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주장으로서 2024-2025시즌에

는 토트넘이 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라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데도 힘을 보탤다.

지난 1월에 토트넘이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을 실행하기로 해 손흥민은 일단 2026년 여름까지는 팀에 남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손흥민과 토트넘의 동행이 계속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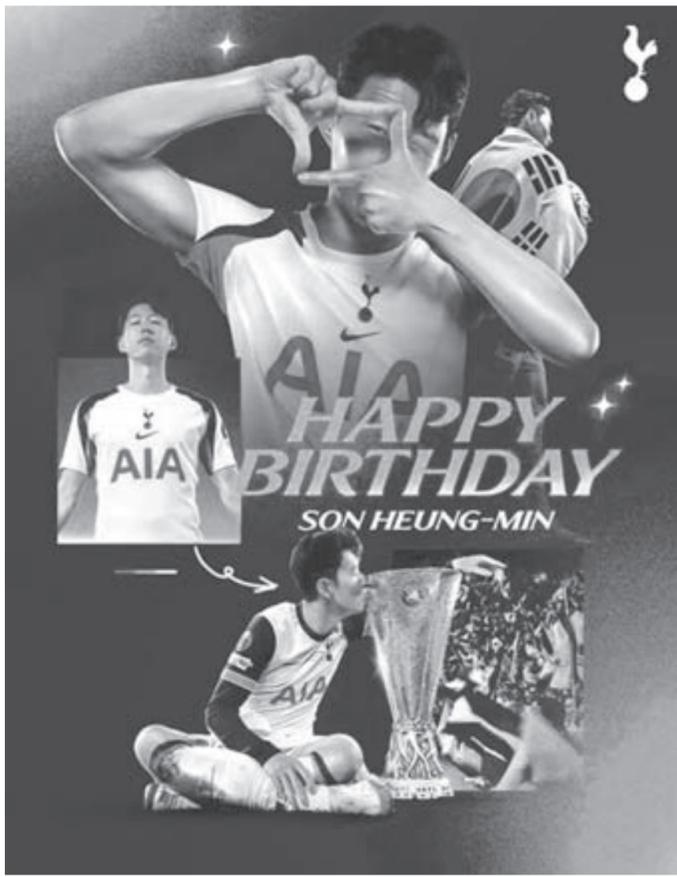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새로 부임해 새판짜기에 들어간 데다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단의 계산과 맞물려 손흥민의 이후 행보에 관한 다양한 전망이 영국 현지에서도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 거론된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구단들이 손흥민의 영입을 원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의 LAFC가 올리비에 지루(릴)의 이적에 따른 대체 선수로 손흥민을 강하게 원했지만, 손흥민이 이를 거절할 것이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토트넘은 이달 말부터 9월 초에 홍콩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위약금 문제가 있어 손흥민을 이적시키더라도 투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손흥민은 지난달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이 끝난 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토트넘이 구단 SNS에 올린 손흥민 생일 축하 게시물.

[토트넘 SNS]

질문에 "아직 (토트넘과) 계약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이 새 시

즌 준비를 위해 팀 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손흥민도 곧 팀에 합류해 프랑크 감독과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김시우·임성재 등도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2주간 유럽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선수들은 10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베크의 르네상스 클럽(파70·7282야드)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총상금 900만 달러)에 참가한 뒤 17일부터 20일까지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에 나선다.

스코틀랜드 오픈은 DP 월드투어의 5대 메이저 대회를 일컫는 '볼렉스 시리즈'에도 속한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를 비롯해, 2위 로리 매킬로이, 3위 젠더 쇼플리, 4위 저스틴 토머스, 5위 콜린 모리카와, 8위 J.J. 스핀, 9위 루드비그 오베리, 10위 제프 슈트라카가 총출동한다.

한국 선수 중에선 지난해 이 대회 공동 4위에 오른 임성재를 비롯해 김시우, 김주형, 안병훈이 나선다. 아직 디오픈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김시우는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기회를 노린다.

[연합뉴스]

한인 선수들 메이저 도전 에비앙 챔피언십 10일 개막

여자 골프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이 10일부터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504야드)에서 펼쳐진다.

올해 총상금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800만 달러다. 총 132명의 선수 가운데 유해란, 김효주, 고진영, 최혜진, 양희영, 윤이나, 임진희, 김아림, 황유민, 김세영, 전인지, 이소미, 이미향, 이일희, 신지은, 강혜지, 안나린, 주수빈, 이정은, 전지원, 박금강 등 20여명의 한인 선수도 출전한다.

한국 선수의 최근 메이저 우승은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양희영이다. 에비앙 챔피언십은 2013년 메이저로 승격했으며 이후 한국 선수 챔피언은 2014년 김효주, 2016년 전인지, 2019년 고진영 세 명이다.

[연합뉴스]

김하성 "정상에 가까워진 느낌"

종아리 경련 회복 중

오른쪽 종아리 경련 증세를 보인 뒤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이 "정상 상태에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하성은 7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방문 경기를 앞두고 중계 전담 방송사인 레이스 베이스볼에 이같이 말하면서 "타격 훈련과 워업 훈련을 하니 느낌이 좋아졌다. 계속 훈련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며 "부상자 명단(IL)에 오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은 김하성은 복귀전이었던 지난 4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 경기에서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다.

7회초 공격 중 2루 도루에 이어 3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근육 경련 증세에 시달렸다. 그는 이튿날인 5일 미네소타 전부터 명단에서 빠졌고 7일 디트로이트전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이날 탬파베이는 디트로이트에 1-5로 패했다.

김하성을 대신해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타일러 윌스는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복귀전이었던 지난 4일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루로 송구하는 김하성.

[로이터-Matt Krohn-Imagn Images]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플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be on edge; 초조하다 불안하다

(Audrey and her mother are having breakfast~)

(오드라가 어머니와 아침을 먹으며~)

Mother: Have you heard anything from your job interviews?

어머니: 입사면접 본 거 연락 온 거 없나?

Audrey: Not yet and I probably won't.

오드라: 아직 없어요. 아마 안 올 거예요.

Mother: How many places did you go to yesterday?

어머니: 어제 몇 군데나 갔었나?

Audrey: I left my resume at six companies.

오드라: 회사 6곳에 가서 이력서 냈어요.

Mother: What's wrong? You seem a little on edge.
어머니: 왜 그래? 좀 초조해 보인다.

Audrey: I don't think I'll ever get a job.

오드라: 직장 못 잡을 것 같아요.

Mother: Well you said all your interviews went well and you have resumes at several places.

어머니: 아니 면접 다 잘 보고 회사 여러 곳에 이력서 냈다며.

Audrey: What's the point mom?

오드라: 엄마 그게 무슨 소용이예요.

Mother: The point is you will get a job if you don't give up.

어머니: 요점은 포기하지 않으면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Audrey: You're right. There's nothing to do but wait.

오드라: 맞아요. 기다릴 수밖에요.

기억할만한 표현

▶ What's the point?: (무슨 소용이야?)

"I could tell him but what's the point? He never listens."

(그 사람에게 말아야 할 수 있지만 무슨 소용 있겠어? 귀담아 듣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 the point is: (요점은)

"The point is you have to be truthful to be respected."

(요점은 정직해야 존경을 받는다는 거야.)

▶ give up: (포기하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어린 시절 ~ 산골에 살며 십 리 길을 뛰어서 학교에 다닌 그는 커서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 (3)한 집 한 집마다. ~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가□□ (5)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는 듯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름 (7)저고리와 함께 입는 여자의 하의 (9)붉은색을 띤 금속 원소. 전기와 열의 전도성이 뛰어나다 (10)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숨김없이 말함. 사랑을 ~하다 (11)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로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13)건물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등에 흠이나 시멘트 파우더를 바름 (15)해엄칠 때 발등으로 물 위를 잇따라 치는 일 (17)인가가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 절의 양식을 대던 승려. 물에 빠진 심봉사를 몽은사 ~이 구해 주었다 (21)한글 자모 ㄱ의 이름 (23)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 (25)단맛이 있는 한약재 (26)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28)커다란 풍선 (29)짙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된 여자 (30)똥퐁이 말의 귀를 스쳐 감.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 (31)셋별

세로열쇠

(1)돼지고기나 소고기, 해산물, 두부 등을 야채와 함께 국물 있게 볶아낸 뒤 밥에 얹어 먹는 음식. □루□□ (2)불넷과 몸에 맞는 볼 (3)아주 크고 우묵한 술 (4)온통 하얗게 썬 머리 (6)웃이나 천의 구김살을 문질러 펴조 (8)편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12)옷의 길이 (14)목이 길게 올라오는 신 (16)물, 술, 기름 등을 뜰 때에 쓰는 기구 (18)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 (19)엘리베이터 (20)임금님 (22)일반적인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 그의 성공 비결은 사내 중심지나 역 근처 등 땅값이 비싼 곳에는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에 있다 (24)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음.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은 (27)단단한 껍데기 안에 보통 한 개의 씨가 들어 있는 나무 열매. 도토리, 은행, 밤, 호두, 잣 따위. ~는 향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E를 다른 식품보다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29)부드럽고 맑은 바람. 십 년을 경영하여/초가삼간 지어내니/나 한 칸 달 한 칸에/~ 한 칸 맡겨 두고/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둘러 놓고 보리라(송순)

스도쿠

		1						2
2			7					4
8		6	3					9
	7	3						2
1		4			8			6
9			1		6	4	7	
3	6				7	8		4
	2					9		6
	1		4					3
								7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3	2	6	9	4	8	1	5
9	5	6	3	1	8	7	2	4
4	1	8	7	2	5	6	9	3
5	7	4	9	3	1	2	8	6
6	9	3	8	7	2	4	5	1
8	2	1	5	4	6	3	7	9
1	6	7	2	5	3	9	4	8
3	4	9	1	8	7	5	6	2
2	8	5	4	6	9	1	3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7월
구
인
광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매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무경력자
-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0명
- 금요일 주방에서 보조 하실분 0명
443-386-0515

엘리컷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시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지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컷시티
410-926-3200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풀/파트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방 렌트

엘리컷시티 롯데연 타운홈 지하방 하나
옷장, 매트리스, 저녁 식사 제공, 유포 \$500
443-522-7777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 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상글홀 이층방 렌트, 간단한 취사, 7월8일부터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상글홀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상글홀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달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다이안트요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Assistant Pastor (Youth Group): Preside and preach at Sunday worship services for youth group; Teach and train youths for knowledge of God in Bible classes and small groups in a Biblical way; Provide spiritual counseling to youth group members; Make visitations within Fairfax County VA and its BLS area, 40hrs/week, M.Div. in Theology and Ordination req'd. Send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 Employer & Job Place: Seoul Presbyterian Church at 6428 Ox Road, Fairfax Station, VA 22039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사무직 Processing Dept.
-서류 및 데이터처리
-기본 문서작성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부 지원 업무
-책임감있고 성실한분 환영
풀타임/사무직 경력자 우대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할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bu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소지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케어, 매트리스 전문매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트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카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성/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컷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트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지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곳 :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중앙일보

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703-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 직원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라센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하신분)
703-750-2424 / 703-717-8256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티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 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 하실분/
파/풀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VA)
▶301-537-3800

No. 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
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AVC, Fenced back 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웰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싱글홈 반 지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2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스런 나무마루, Fence있는 뒷마당, 남
향, 밝은집,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톤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넓은
리빙룸 \$1,600 (물값&가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델링 화장
실, 고급스런 나무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
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부엌,
새화장실, 새나무마루, 새페인트, 새창문,
Costco, Walmart와 가까운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동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첼트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방세 놓습니
다.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싱글홈 반 지하
방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료 \$800
703-577-3421 (문자요망)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층방 렌트, 간단한 취사, 7월8일부
터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 유료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
트 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
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넉넉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부동산 매매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센터빌 싱글홈 \$915,000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5, Gourmet Kitchen, 워
크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 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703-813-8949

Stafford 싱글하우스 \$69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 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데크, Stone Patio, 새
단지
▶703-813-8949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 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
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
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코트레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데크,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
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
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계단 없슴.
2. 매나서스 콘도 \$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
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헨든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왁싱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십니다)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
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
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져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심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차인과 함께 창업하실분들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캐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고가구 차단스 3 피스셋 \$4000 주고 구입.
방색, \$1000 불에 사가실분. 상태 양호
703-939-2737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드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 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한국고전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고전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중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
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
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
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
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외도공사, 추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wani6811
▶571-331-6811

보험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용자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소독/가스검사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냉동 / 히팅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래이어벤트크린, 가정용/산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산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방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웁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제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셉텀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가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 blinds.com / bbgb 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 &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핫딜**

핫딜 여름 이벤트 **6.23(월)~7.31(목)**

99불 이상 구매시 경품이와르르~

이벤트 기간중 핫딜에서 \$99이상 구매하면 자동 응모!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무료
배송**
Free Shipping



**4팩세트
특가**

50ml 4팩세트 특가! 뷰티 유저에게 주목받는 No.1 선크림

청량한 기운 머금은 인제 자작나무 수액의 촉촉한 수분담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수분길을 열어주어 하루종일 촉촉하게! ~~\$88~~ **\$4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하나더증정
1+1**

전통 한방 처방, 공진단+현대 발효 과학의 프리미엄 건강식품

항암 성분, 홍삼의 57배 중국 황제에게 진상되던 황제의 보약

아엘 사향 발효공진단 10환, 30환, 50환 1+1빅세일

10환 (10환더) \$500 30환 (30환더) \$1400 50환 (50환더) \$2160

**무료
배송**
Free Shipping



7無 첨가, 건강한 조미료로 깊은 맛의 어떤 요리에도 OK!

19가지 자연재료를 한알에 담은 개별포장 코인 육수

요리의 완성, 코인육수 명품한알

3개세트 60알 ~~\$51~~ \$25 6개세트 120알 ~~\$102~~ \$3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만능찜, 슬로우쿡, 볼륨&폼, 알고리즘으로 맛있게!

[쿠첸] 디자인과 기능의 완성도를 높인 핏Fit한 밥솥

이지 오픈 핸들, 다이아몬드 코팅 내솥, 미니멀리즘 디자인

CRS-FWK 듀얼프레셔 전기압력밥솥

6인 CRS-FWK0640WUS \$199.99 10인 CRS-FWK1040WUS \$21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이글루 쿨매트 냉감성, 속건성, 경량성, 통기성, 간편세탁까지!

우수한 원단, 독일산 프리미엄 시직기계로 국내 100% 생산

일월 듀라론 냉감 쿨 매트 (간편세탁)

King \$99 Queen \$89 Full \$6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타고난 곁을 빛내는 스킨누더쿠션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모이스처 핏 텍스처, 클리어 커버링, 내추럴 글로우 & 래스팅

정샘물 에센셜 스킨누더쿠션

리필 포함 (7가지 쉐이드) \$39.99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받기 능력 쏙쏙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디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폴렌)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미국에서 자란 영어권 손주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 또는 Barnes and Nobles에서 책을 Grandpa, Why Do You Go To Church? 로 검색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는 저자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메시지로 집필한 책입니다. 또한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이 책에 담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지혜는, 모든 젊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자선 기부와 교회 공동체 속 연결의 힘이 어떻게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E-Book원하시는 분께 이메일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Book신청 이메일 주소: jchung1@me.com

독점 Annandale 타운홈

2 Car Garage, 엔드 유닛, 방4,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2020년 BUILT, 밝고 환한 럭셔리 홈, H-MART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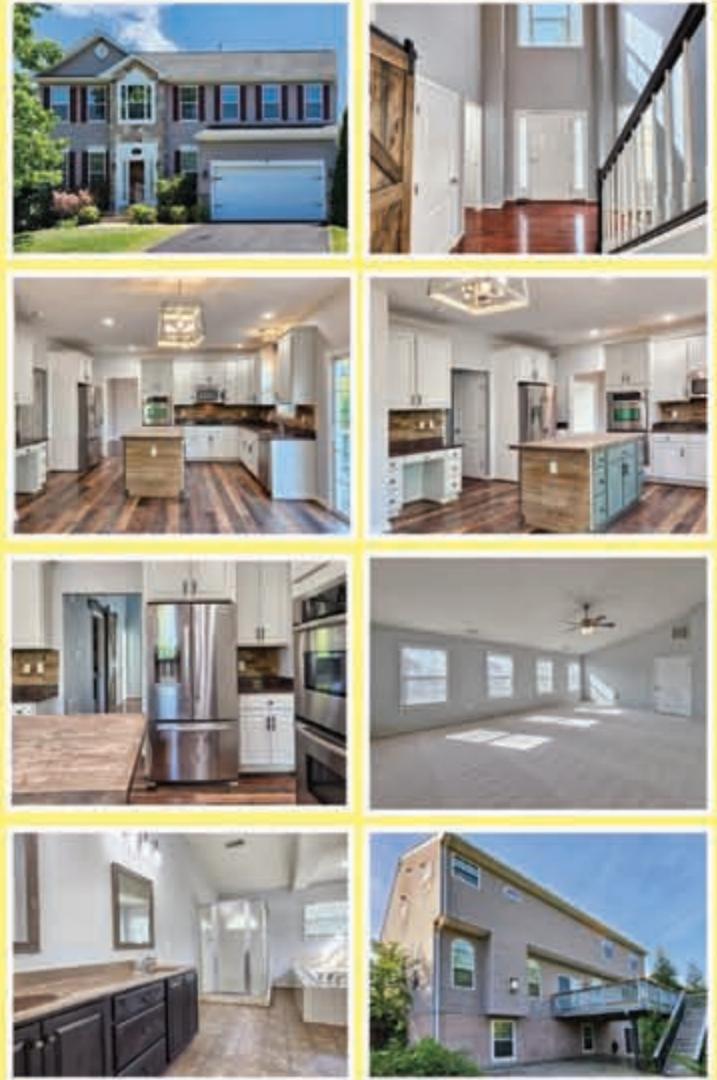
\$710,000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699,900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 1/2, Gourmet Kitchen, 워크 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915,0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